소망을 나누는 마음

202303

2023 상반기 **성인성서연구**

3. 7(화) ~ 6. 15(목)

화요조찬 - 오전 6:30 (개강 : 3월 7일, 선교관 2층 제1예배실)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배우는 리더십

사울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공부하면서 성경적 리더십을 함양하고, 가정과 일터와 국가의 성경적 지도자로 거듭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화요반 강의 - 오전 10:00 (개강 : 3월 7일)

강의 제목	강사	장소
후기예언서	홍성민 목사	선교관 B1
누가복음	이순기 목사	본당 B2
에고 에이미ἐγώ εἰμι	장재원 목사	선교관 2
느리게 느껴보는 복음서	윤 환 목사	2교육관 B2
사도행전 강해	류헌조 목사	분당기도처
로마서 산책	이재겸 목사	선교관 B2
성도의 기본 생활	주요한 목사	2교육관 B1
욕망과 영성	이경희 목사	본당 B1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이재용 목사	본당 B2

목요반 강의 - 오전 10:00 (개강 : 3월 9일)

강의 제목	강사	장소
창세기	이우성 목사	2교육관 B1
열왕기상·하	나영덕 목사	본당 B1
이사야 - 심판과 회복	권정혁 목사	본당 B2
누가복음 - 이방인 누가의 예수님 이야기	한정운 목사	선교관 B2
요한복음	김영규 목사	선교관 2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유지미 목사	본당 B2
사도행전 강해	정제헌 목사	선교관 B2
고린도전·후서	이성민 목사	선교관 B1
하나님의 역사役事, 우주의 역사歷史	김경래 목사	2교육관 B2

저녁 강의 - 오후 7:30 (개강 : 3월 9일)

강의 제목	강사	장소
애증의 잔소리꾼, 복음	윤 환 목사	2교육관 3

아둘람 기도회 (온라인 지구) - 오후 09:00 (개강 : 3월 3일)

강의 제목	강사	장소
초대교회의 전도를 배우다	조성실 목사	온라인(월 1회 온·오프 병행)

* 소속된 지구와 관계없이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저녁 강의(전교인 대상)는 매주 목요일에, 온라인 지구 아둘람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CONTENTS

March 2023

하늘을 여는 기도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2
깊어지는 영성	받은 것을 세어 보라 ㅣ 김경진	4
묵상에 붙임	가차없는 신뢰 ㅣ 브레넌 매닝	6

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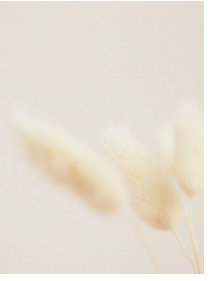
소망말씀나눔 활용법		10
말씀 개관		12
3월 본문	마가복음·에스겔	16
	1주(3/6) ㅣ 2주(3/13) ㅣ 3주(3/20) ㅣ 4주(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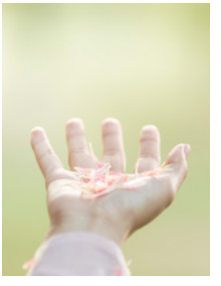
FA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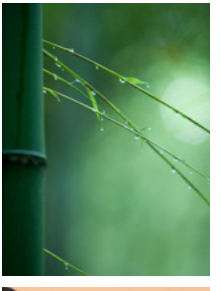
땅끝에서 온 편지	이때다 하시면 ㅣ 최승근 · 이소미	38
소망사랑방	열렸다 봉사학교 함께 가자 봉사현장	76
이스라엘과 코메르 홍	마트가 아니라 마태 그리고 사순절 ㅣ 홍성민	112
공간공감	수피아 여학교 커티스 메모리얼 홀 ㅣ 홍성찬	148
이달의 기도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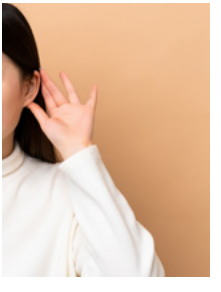
COMMUNICATION

문화읽기	<라인>을 통해 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 ㅣ 황영미	182
소망마당	하나님의 시간 속 하나님의 사람들 ㅣ 청년플러스	186
예배자의 길	3월 우리의 고백 ㅣ 김성진 · 김동순 · 안진현	190
뿌리를 찾아서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ㅣ 박경수 · 이근복	194
세계관과 예술의 만남	원근법과 명암법에 나타나는 세계관 ㅣ 허윤정	198
돌봄의 창	믿음은 들음에서 ㅣ 장선아	202
묵상을 품은 선교 이야기	소망선교훈련학교, 그 변화의 시작에 관하여	206
소망뉴스		210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허물 많고 죄도 크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니
용기를 내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허물을 덮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받은 것을 세어 보라

글 **김경진**

탕자의 비유에 관하여 사람들마다 주목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비유의 이름처럼 둘째 아들에게 집중하는 접근이 있는가 하면, 첫째 아들에 주목하면서 '불평하는 형의 비유' 혹은 '기뻐하지 않는 형의 비유'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성경을 보다 풍요롭게 이해하도록 도우며 다양한 시대, 다양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는 형의 입장에서 비유를 살펴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재산 분배에 관한 과정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 동안에 자식이 유산을 분배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는 엄청난 불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재산 분배를 요청합니다. 심지어는 며칠이 안 되어 가족을 떠나 외국 땅으로 가서 재산을 탕진합니다. 이로써 그는 재산을 분배받은 아들이 져야 할 부모 봉양 책임을 저버리고, 완전한 이별을 선언합니다.

그가 돼지 치는 일을 한 것 역시 또 다른 죄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먹지도, 접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돼지를 치며 짐승의 우리 안에 머물게 된 모습에서 육체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아버지와,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토록 큰 죄를 지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 성대히 잔치를 벌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버지의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첫째 아들로 이어집니다. 동생과 달리 아버지를 위하여 종일 노동한 맏아들의 일상이 둘째 아들과는 확연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맏아들이 돌아오자 분위기가 확연히 바뀝니다. 형은 아버지가 마련한 잔치를 거부함으로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에 흠집을 내고 맙니다. 신명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권위에 도전하는 불효자는 죽이도록 명령합니다(신 21:18~21). 둘째 아들만큼이나 첫째 아들도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제는 첫째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얘야" 하고 다정히 부르며, 그와 아들 사이에 변한 것 하나 없는 돈독한 관계를 확인시켜 줍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눅 15:31)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모두에게 한 가족이라는 관점을 심어 주고자 노력하는 자비로운 아버지입니다.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맏아들의 심정이 이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이토록 탕자를 환영해 줄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분명 공정한 처사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모습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에 나오는 품꾼에게도 발견됩니다. 자신보다 늦게 온 품꾼들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자 주인을 향해 원망합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은 처사가 아닌가?" 그러나 약속받은 품삯을 제대로 받았을 뿐입니다. 요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 주세요! 그 편이 낫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매처적인 본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받아 누리는 걸 보면서 공평을 논한다면 한없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정직한 매처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생명도, 가족도, 작든 크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3월, 아들을 내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차없는 신뢰

글 브레넌 매닝

예수님의 갈보리 죽음은
아버지를 향한 최고의 신뢰 행위다.

웹스터 사전에 보면 가차없다ruthless는 '연민이 없다'로 정의되어 있다. 신뢰의 문맥에서 나는 이 말을 "자기 연민이 없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자기 연민은 신뢰의 대적인 까닭이다.

그렇다고 모든 자기 연민이 없어져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 삶의 공간에 예수님 십자가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때, 고통과 고난이 침입하여 우리의 안전하고 정돈된 삶을 들쑤셔 놓을 때, 반갑지 않은 비극이 찾아와 내 상한 마음의 비명소리밖에 들리지 않을 때, 용기가 창밖으로 날아가고 주변 세상이 갑자기 어둡고 무서워질 때, 자기 연민은 정상적이고 불가피한 맨 처음 반응이자 어쩌면 올바른 반응이다. 그것을 억압하려 해 봐야 우리만 더 기진할 뿐이다. 우리는 영적 로봇이 아니라 민감한 인간이다. 그러나 자기 연민이 악성으로 변하는 시점이 있다. 이제 자기 연민은 후퇴, 고립, 음주, 마약 등 자멸의 행동 습관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우리는 그저 자기 연민에 시간제한을 둘 은혜를 구할 뿐이다.

가차없는 신뢰의 길은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엄연한 현실이다. 그것은 우리 삶을 정의하고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을 계시한다. 그것은 우리의 결정과 언어를 빚어내고 의식을 부추긴다. 그것은 우리 심령에 자양분을 주고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우리 의지를 지탱해 주고 세상 속 우리의 존재양식에 살과 뼈를 입힌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막 14:36). 예수님의 갈보리 죽음은 아버지를 향한 최고의 신뢰 행위다. 어떻게든 아바께서 자신을 신원해 주시리라는 확신만으로 예수님은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 채 죽음의 어둠 속에 뛰어드신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생명을 버리신 일은 불굴의 신뢰에 대한 최상의 표현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과 우리 각인에게

풍성한 삶을 가져다준다. 그분의 끈질기고 완강한 복된 신뢰는 아바의 마음을 황홀케 한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뜻이다.

신뢰의 성장은 분명 자생적일 수 없다. 가장 요긴한 것 한 가지를 우리는 자급할 수 없다. 그러나 신뢰의 풍성한 수원이 하나 있으니 우리는 계속 거기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발아래, 골고다의 메마른 반석에서 흘러나온다. 질식하여 숨이 끊긴 예수님의 비할 나위 없는 사랑을 생각해 보라.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13). 죽어 가는 예수님 얼굴을 잠깐 그대로 대면한 채 "나는 너와 함께 있으려고 죽는다"는 그분의 속삭임을 들어 보라.

그 사랑은 어제 갈보리에서도 오늘 우리 마음에서도 영영 천국에서도 동일하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단지 교회를 향한 영웅적 모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그분의 사랑은 불신과 겁에 질린 우리 마음을 자신이 사랑받음을 신뢰하는 강인한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자격 없고 은혜를 모르는 우리 자아의 이 모습 이대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신뢰는 생겨난다! 그분께 사랑받음을 알 정도로 당신은 그분을 신뢰하게 된다.

가차없는 신뢰는 결국 예수님 인격에 대한 믿음과 그분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귀결된다. 모든 혼란스런 외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죽음을 응시하며** 오직 예수께서 약속하셨다는 이유만으로 **부활을 고대한다.**

- 브레넌 매닝 『신뢰』(복 있는 사람, 2020), 205~223 중 일부.

WORD

마가복음 · 에스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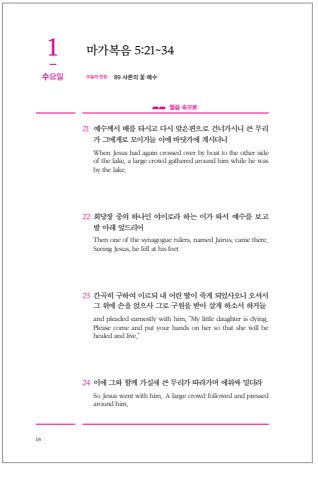
소망말씀나눔 **활용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무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소망말씀나눔 본문에 따른 새벽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아이폰** : App Store에서 '소망교회'로 검색하여 설치
· **안드로이드폰** : T Store 혹은 Google Play에서 '소망교회'로 검색하여 설치
· **문의** : 교회사무실 02-512-9191 (내선 141~145)

말씀 속으로


1
수요일

마가복음 5:21~34

오늘의 찬송 89 사론의 꽃 예수

말씀 속으로

21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When Jesus had again crossed over by boat to the other side of the lake, a large crowd gathered around him while he was by the lake,

22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Then one of the synagogue rulers, named Jairus, came there. Seeing Jesus, he fell at his feet

23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and pleaded earnestly with him, "My little daughter is dying. Please come and put your hands on her so that she will be healed and live,"

24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So Jesus went with him. A large crowd followed and pressed around him.

16

1단계 :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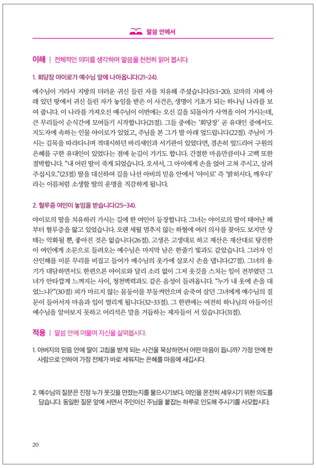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단계

말씀 앞에 조용히 앉으십시오. 묵상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마음을 흔들어놓거나 묵상에 방해가 될 것 같다고 여겨지거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먼저 기도하십시오.

2단계 : **이해**

말씀을 읽고 귀로 듣는 단계

말씀을 두 번 정도 천천히 읽으십시오. 나직하게 소리 내어 읽으면 더 좋습니다. 입으로 읽으면 귀로 들리고, 귀로 들으면 그 뜻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처음 읽을 때에는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본문을 읽으십시오. (본문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묵상집에 있는《이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21~24).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의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5:1~20).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땅에서 귀신 들린 자가 놓임을 받은 이 사건은, 생명이 기초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 줍니다. 이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오신 길을 되돌아가 사역을 이어 가시는데, 큰 무리들이 순식간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21절). 그들 중에는 '회당장' 곧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에 속하는 인물 야이로가 있었고, 주님을 본 그가 발 아래 엎드립니다(22절). 주님이 가시는 길목을 따라다니며 적대시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다면, 겸손히 엎드리어 구원의 은혜를 구한 유대인이 있었다는 점에 눈길이 가기도 합니다. 간절한 마음만큼이나 고백 또한 절박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23절) 딸을 대신하여 길을 나선 아비의 믿음 안에서 '야이로' 즉 '밝히시다, 깨우다'라는 이름처럼 소생할 딸의 운명을 직감하게 됩니다.

2. 혈루증 여인이 놓임을 받습니다(25~34).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러 가시는 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야이로의 딸이 태어난 해부터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멈추지 않는 하혈에 여러 의사를 찾아도 보지만 상태는 악화될 뿐, 좋아진 것은 없습니다(26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재산은 재산대로 탕진한 이 여인에게 소문으로 들려오는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한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그러자 인산인해를 이룬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가에 살포시 손을 댑니다(27절). 그녀의 용기가 대담하면서도 한편으론 야이로와 달리 소리 없이 그저 옷깃을 스치는 일이 전부였던 그녀가 안타깝게 느껴지는 사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30절) 피가 마르지 않는 몸둥이를 부둥켜안으며 숨죽여 살던 그녀에게 예수님의 질문이 들어서자 마음과 입이 열리게 됩니다(32~33절). 그 한편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말을 거듭하는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31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아버지의 믿음 안에 딸이 고침을 받게 되는 사건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정 안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 전체가 바로 세워지는 은혜를 마음에 새깁시다.

2. 예수님의 질문은 진정 누가 옷깃을 만졌는지를 물으시기보다, 여인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의도를 담습니다. 동일한 질문 앞에 서면서 주인이신 주님을 붙잡는 하루로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합시다.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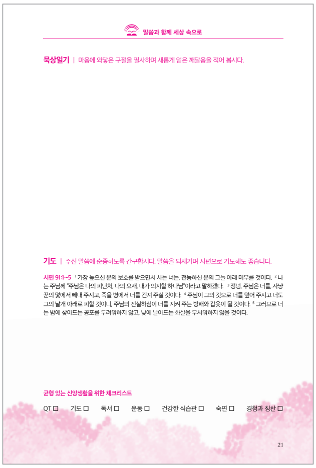
3단계 : **적용**

말씀에 머물며 나를 살피는 단계

다시 한 번 읽으며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나 새로 깨달은 말씀에 밑줄을 긋고, 그 말씀에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시면 정직하게 답변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물며 나를 성찰하고 주시는 위로와 격려 뿐 아니라 질책까지도 귀 기울이십시오. (묵상을 위한 질문인《적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세상속으로

새벽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더욱 깊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메시지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며, 한 공동체가 되어 갑니다.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1:1~5 [1]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2]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3]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 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4]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 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 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5]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1

4단계 : **기도**

내 삶 속에 하나님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단계

하나님께 응답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마가복음(5~9장)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동하신다.
유대의 색채가 짙은 땅에서 이방의 문화가 자리잡은 땅으로, 그리고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무엇이 그분을 걷고 또 걷게 하였을까.

'땅'에는 사람이 정착하여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땅을 밟으실 때마다 변화되는 무리들이 따른다.
그런데 웬일인지 누구 하나 성한 곳이 없다.
몸이 성하다 싶으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성하다 싶으면 몸이 아프다.
나름대로 갖춘 지위와 학식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으려는 서슬 퍼런 자들이 있다(7:1~5; 8:11~13). 그런가 하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위해서 유대인의 한 목수에게 무릎을 꿇으며 간절히 간청하는 부유한 이방 여인도 보인다(7:24~30).

무엇이 보다 나은 삶인지 답을 얻기도 전에 '제자'라 하는 자들의 어리석고도 미련함이 가슴을 더욱 답답히 조여온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가졌지만 불어오는 바람에 어찌할 줄 모르고 비명을 지른다(6:48~49). 스스로에 의하여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참혹한 현실이다. 여기에는 남자도 여자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어린아이도 늙은이도 빗겨가지 못한다. 우리는 모두 아프고 불완전하다.

그런 우리에게 길 위에 서신 주님이 물으신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8:29)
갖가지 신과 신전이 위용을 떨치며 힘과 재물을 자랑 삼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향하는 중이었다.
돌아오는 주님의 음성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8:34)
원수 같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이곳에서 예수님은 도리어 죽기를 명하신다.
자기 부인과 죽음이 따르지 않고서 생명은 결코 움틀 수 없다.
이것이 사람의 길로 난 길목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보이신 주님의 말씀이다.

질문을 던지신 주님이 걷고 또 걸으신다. 어느새 골고다 언덕이 눈에 보인다.
죽음의 자리를 향하시는 발걸음이 그분의 죽으심을 이미 알린다.
기껏해야 "살려달라"는 외마디뿐인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부터였다.
성경은 자신을 비우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8:2)

그 사랑이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를 받아 먹은 제자들 가운데 새겨진다.
그들도 몸과 마음을 쪼개어 오천 명, 사천 명을 먹이는 기적에 동참하라고 부탁하신다.

구원의 식탁에 초대된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길인가, 사람의 길인가. 죽음으로서 살고 있는가, 죽기를 마다하며 살고자 하는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주님이 나에게 걸어오신다.

그때에 겨우 고백해 본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한눈에 보는 이달의 본문

1~4일 주간		
1(수)	마가복음 5:21~34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 걸린 여인 이야기
2(목)	5:35~43	치유받은 야이로의 딸
3(금)	6:1~6上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예수님
4(토)	에스겔 38:1~23	곡과 무리에 관한 심판 1
6~11일 주간		
6(월)	에스겔 39:1~20	곡과 무리에 관한 심판 2
7(화)	마가복음 6:6下~13	제자를 파송하시는 예수님
8(수)	6:14~29	세례 요한의 죽음
9(목)	6:30~44	오병이어 사건
10(금)	6:45~52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11(토)	에스겔 39:21~29	이스라엘의 회복될 미래
13~18일 주간		
13(월)	에스겔 40:1~16	성전 환상 1
14(화)	마가복음 6:53~56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15(수)	7:1~13	전통을 우선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16(목)	7:14~23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17(금)	7:24~30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18(토)	에스겔 40:17~27	성전 환상 2
20~25일 주간		
20(월)	에스겔 40:28~49	성전 환상 3
21(화)	마가복음 7:31~37	귀먹고 말 더듬는 병자 치유
22(수)	8:1~10	사천 명을 먹이신 사건
23(목)	8:11~21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예수님
24(금)	8:22~26	벳새다의 맹인 이야기
25(토)	에스겔 41:1~11	성전 환상 4
27~28일 주간		
27(월)	에스겔 41:12~26	성전 환상 5
28(화)	마가복음 8:27~38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29(수)	9:1~13	변화산 사건
30(목)	9:14~29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
31(금)	9:30~37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고

3

March 2023

SUN	MON	TUE	WED
			1 삼일절
5	6	7 화요조찬 성경공부 · 성인성서연구(화요반) 개강	8
12	13	14	15 권사회 월례회
19	20	21	22
26	27	28	29

4
April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HU	FRI	SAT
2	3 전반기 구역지도자 수련회	4
9 성인성서연구(목요반) 개강	10	11
16	17	18
23	24 1차 세례교육(~25)	25
30	31 2차 세례교육(~4/1)	

1 — 수요일

마가복음 5:21~34

오늘의 찬송 89 샤론의 꽃 예수

말씀 속으로

21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When Jesus had again crossed over by boat to the other side of the lake, a large crowd gathered around him while he was by the lake.

22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Then one of the synagogue rulers, named Jairus, came there. Seeing Jesus, he fell at his feet

23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and pleaded earnestly with him, "My little daughter is dying. Please come and put your hands on her so that she will be healed and live."

24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So Jesus went with him. A large crowd followed and pressed around him.

25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And a woman was there who had been subject to bleeding for twelve years.

26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She had suffered a great deal under the care of many doctors and had spent all she had, yet instead of getting better she grew worse.

27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When she heard about Jesus, she came up behind him in the crowd and touched his cloak,

28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because she thought, "If I just touch his clothes, I will be healed."

29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Immediately her bleeding stopped and she felt in her body that she was freed from her suffering.

30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At once Jesus realized that power had gone out from him. He turned around in the crowd and asked, "Who touched my clothes?"

31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You see the people crowding against you," his disciples answered, "and yet you can ask, 'Who touched me?'"

32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But Jesus kept looking around to see who had done it.

33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Then the woman, knowing what had happened to her, came and fell at his feet and, trembling with fear, told him the whole truth.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He said to her, "Daughter, your faith has healed you. Go in peace and be freed from your suffering."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21~24).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의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5:1~20).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땅에서 귀신 들린 자가 놓임을 받은 이 사건은, 생명이 기초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 줍니다. 이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오신 길을 되돌아가 사역을 이어 가시는데, 큰 무리들이 순식간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21절). 그들 중에 '회당장' 곧 회당의 일을 관장하는 나름의 지위를 갖춘 인물 야이로가 주님을 보자 발 아래 엎드립니다(22절). 주님이 가시는 길목을 따라다니며 적대시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다면, 겸손히 엎드리어 구원의 은혜를 구한 유대인이 있었다는 점에 눈길이 갑니다. 간절한 마음만큼이나 고백 또한 절박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23절) 딸을 대신하여 길을 나선 아비의 믿음 안에서 '야이로' 즉 '밝히시다, 깨우다'라는 이름처럼 소생할 딸의 운명을 예감하게 됩니다.

2. 혈루증 여인이 놓임을 받습니다(25~34).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러 가시는 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야이로의 딸이 태어난 해부터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멈추지 않는 하혈에 여러 의사를 찾아도 보지만 상태는 악화될 뿐, 좋아진 것은 없습니다(26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재산은 재산대로 탕진한 이 여인에게 소문으로 들려오는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한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그러자 인산인해를 이룬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가에 살포시 손을 댑니다(27절). 용기가 대담하면서도 야이로와 달리 소리 없이 그저 옷깃을 스치는 일이 전부였던 그녀가 안타깝게 느껴지는 사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30절) 피가 마르지 않는 몸둥이를 부둥켜안으며 숨죽여 살던 그녀에게 예수님은 도리어 질문하시며 얼어붙은 마음과 입을 열고 계셨습니다(32~33절). 그 한편에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어리석은 말을 거듭하는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31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아버지의 믿음 안에 딸이 고침받는 사건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 전체가 바로 세워지는 은혜를 묵상하며 믿음의 능력을 되새겨 봅시다.

2. 예수님은 옷깃을 만진 자를 확인하시기보다 여인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질문하십니다. 동일한 질문 앞에 서면서 나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나는 오늘을 사모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1:1~5 [1]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2]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3]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 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4]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 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 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5]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 — 목요일

마가복음 5:35~43

오늘의 찬송 292 주 없이 살 수 없네

말씀 속으로

35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While Jesus was still speaking, some men came from the house of Jairus, the synagogue ruler. "Your daughter is dead," they said. "Why bother the teacher any more?"

36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Ignoring what they said, Jesus told the synagogue ruler, "Don't be afraid; just believe."

37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He did not let anyone follow him except Peter, James and John the brother of James.

38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When they came to the home of the synagogue ruler, Jesus saw a commotion, with people crying and wailing loudly.

39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He went in and said to them, "Why all this commotion and wailing? The child is not dead but asleep."

40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But they laughed at him. After he put them all out, he took the child's father and mother and the disciples who were with him, and went in where the child was.

41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He took her by the hand and said to her, "Talitha koum!" (which means, "Little girl, I say to you, get up!").

42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Immediately the girl stood up and walked around (she was twelve years old). At this they were completely astonished.

43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He gave strict orders not to let anyone know about this, and told them to give her something to eat.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딸의 죽음에 야이로가 두려워합니다(35~38).

소리를 내든, 마음속으로 아뢰이든 자녀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 걸린 여인 모두에게서 겸손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으론 딸의 치유가 가장 급선무인 야이로에게 혈루병 여인을 살리시는 일이 어떻게 다가갔을지 의문이 듭니다. 주님이 죽어 가는 딸을 한시라도 빨리 찾아가셔야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딸이 태어난 해부터 혈루병을 앓기 시작한 여인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덩달아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일에 관하여 성경은 침묵하는 한편,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대신 전합니다. 그러자 방금 전 무릎을 꿇던 야이로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에게 두려움이 물밀 듯이 일어납니다. 그의 마음을 읽으신 주님이 이내 자비로운 음성으로 다독이시며 일깨우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36절) 딸이 치유받는 과정 속에서 어느새 아비 또한 새롭게 세움을 받으며 집에 이르렀고, 그곳에 선택된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37~38절).

2.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39~43)

예수님과 세 제자가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니 여기저기서 통곡의 소리가 울립니다.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무섭게 임하며 죽음이 불러일으킨 상실과 슬픔 가운데 한줄기 생명의 빛이 일어납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39절) 그럼에도 사람들의 눈엔 숨을 거둔 야이로의 딸만 보일 뿐 비웃기에 급급합니다(40절). 주님은 차가운 냉대가 자리한 그곳에서 한 발 더 깊숙이 나아가 죽은 아이가 누운 자리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을 잡고 명하시기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시자 열두 살 난 아이가 '곧' 일어나 걷게 됩니다(41~42절). 보고도 믿지 못할 풍경에 놀라고 또 놀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이제는 먹고 걸으며 완전히 살아 돌아온 아이의 모습 속에서 죽음 너머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과 믿는 자의 부활을 소망하게 됩니다(43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예수님의 손만 대어도 딸이 나을 것이라고 고백한 야이로이지만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곧바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의 모습을 보며 주시는 마음을 나누어 봅시다.

2.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죽음은 별 것 아니지만 사람들은 죽은 아이를 바라보며 비웃습니다. 그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을 반하는 감정이 내 안에는 없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77:7~10,13~15 7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8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 버린 것일까? 9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들이신 것일까?" 하였습니다. (셀라) 10 그 때에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 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13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14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15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셀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3
—
금요일

마가복음 6:1~6上

오늘의 찬송 528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말씀 속으로

1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Jesus left there and went to his hometown, accompanied by his disciples.

2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냐

When the Sabbath came, he began to teach in the synagogue, and many who heard him were amazed. "Where did this man get these things?" they asked. "What's this wisdom that has been given him, that he even does miracles!

3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Isn't this the carpenter? Isn't this Mary's son and the brother of James, Joseph, Judas and Simon? Aren't his sisters here with us?" And they took offense at him.

4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Jesus said to them, "Only in his hometown, among his relatives and in his own house is a prophet without honor."

5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He could not do any miracles there, except lay his hands on a few sick people and heal them.

6上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And he was amazed at their lack of faith.

6:3 예수를 배척한지라
또는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지라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십니다(1~3).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에 이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음을 얻은 사건은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점차 도래한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여기에 죽은 야이로의 딸이 기적처럼 소생한 사건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삼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예고된 그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대적하는 무리 또한 거세게 일어나는데, 본 단락은 '고향' 땅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여 줍니다(1절). 이곳 나사렛에서 안식을 맞으신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가르치시는 때에 사람들이 듣고 놀라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어올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2절) 분명 같은 고향에서 나고 자란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행보가 구별되신 까닭입니다. 그중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배척을 표하며 자신들이 알던 예수를 고집하던 고향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밝힙니다(3절).

2. 나사렛에서 소수의 병자가 나음을 받습니다(4~6上).

5장에서는 주님께 겸손한 믿음을 보인 자가 소개되었다면, 6장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무리를 소개합니다. 이렇듯 5~6장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화되듯이 2~3절에 나타난 마가의 기술도 빠르게 전환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며 그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몰라도 놀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보고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듯 예수님이 자신을 선지자라 칭하시며,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예언자의 현실을 일깨워 주십니다(4절).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반역의 기질이 뿌리깊다는 사실이 전해집니다. 이와 함께 성경은 혈루병 걸린 여인이나 야이로처럼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임하는 구원의 소식을 알리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소수였습니다(5절). 그 한편에 배척하는 다수의 무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반문하시는 음성이 들려오는 듯도 합니다(6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고향 사람이 가진 선입견은 예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반응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2.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권능을 발휘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결함이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51:15~19 15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16 주님은 제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17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18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19 그때에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 때에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4 — 토요일

에스겔 38:1~23

오늘의 찬송 413 내 평생에 가는 길

말씀 속으로

1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2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Son of man, set your face against Gog, of the land of Magog, the chief prince of Meshech and Tubal; prophesy against him

3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and say: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I am against you, O Gog, chief prince of Meshech and Tubal.

4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I will turn you around, put hooks in your jaws and bring you out with your whole army - your horses, your horsemen fully armed, and a great horde with large and small shields, all of them brandishing their swords.

5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Persia, Cush and Put will be with them, all with shields and helmets,

6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also Gomer with all its troops, and Beth Togarmah from the far north with all its troops - the many nations with you.

7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Get ready; be prepared, you and all the hordes gathered about you, and take command of them.

8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After many days you will be called to arms. In future years you will invade a land that has recovered from war, whose people were gathered from many nations to the mountains of Israel, which had long been desolate. They had been brought out from the nations, and now all of them live in safety.

9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You and all your troops and the many nations with you will go up, advancing like a storm; you will be like a cloud covering the land.'

38:2 마곡 땅에 있는 야벳의 아들들 중 하나이다. '마'가 접두사를 뜻한다는 점에서 곡의 땅에 있는 여러 민족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해석된다.

4
—
토

10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On that day thoughts will come into your mind and you will devise an evil scheme.

11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 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You will say, "I will invade a land of unwalled villages; I will attack a peaceful and unsuspecting people - all of them living without walls and without gates and bars.

12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I will plunder and loot and turn my hand against the resettled ruins and the people gathered from the nations, rich in livestock and goods, living at the center of the land."

13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Sheba and Dedan and the merchants of Tarshish and all her villages will say to you, "Have you come to plunder? Have you gathered your hordes to loot, to carry off silver and gold, to take away livestock and goods and to seize much plunder?'"

14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Therefore, son of man, prophesy and say to Gog: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In that day, when my people Israel are living in safety, will you not take notice of it?

15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You will come from your place in the far north, you and many nations with you, all of them riding on horses, a great horde, a mighty army.

16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곡아 끝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You will advance against my people Israel like a cloud that covers the land. In days to come, O Gog, I will bring you against my land, so that the nations may know me when I show myself holy through you before their eyes.'

17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Are you not the one I spoke of in former days by my servants the prophets of Israel? At that time they prophesied for years that I would bring you against them.

38:12 세상 중앙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곳을 가리키는 단어로 이스라엘이 열방의 중심이라는 의미를 담는다.

38:13 부자들
히브리어) '젊은 사자'

4
—
토

18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This is what will happen in that day: When Gog attacks the land of Israel, my hot anger will be aroused, declares the Sovereign LORD.

19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In my zeal and fiery wrath I declare that at that time there shall be a great earthquake in the land of Israel.

20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The fish of the sea, the birds of the air, the beasts of the field, every creature that moves along the ground, and all the people on the face of the earth will tremble at my presence. The mountains will be overturned, the cliffs will crumble and every wall will fall to the ground.

21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I will summon a sword against Gog on all my mountains, declares the Sovereign LORD. Every man's sword will be against his brother.

22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I will execute judgment upon him with plague and bloodshed; I will pour down torrents of rain, hailstones and burning sulfur on him and on his troops and on the many nations with him.

23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And so I will show my greatness and my holiness, and I will make myself known in the sight of many nations. Then they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이 곡과 연합군을 일으키십니다(1~13).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33~37장과 완성된 회복을 보여 주는 위대한 환상을 기록한 40~48장 사이에 위치한 38~39장은, 마곡 땅의 곡과 군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곡'의 의미를 두고 이렇다 할 뚜렷한 해석이 없는 건 사실이나 학자들은 지도자 혹은 왕으로서 이해하며, 여러 민족의 연합군에 의해 공격당할 이스라엘 미래를 예고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으론 이곳과 더불어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곡이 언급되는 까닭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종말론적인 원수 세력이라는 추측도 존재합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곡과 연합군이 힘을 합하여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방어책 하나 없이 평온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을 치고 상업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원수의 속셈도 이야기되는 가운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적군을 일으키셨다고 밝히며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2.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하십니다(14~23).

"마치 구름이 땅을 덮는 것같이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곡아,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끌어들여서 내 땅을 치게 하겠다."(16절) 백성의 입장에선 얼마나 청천벽력과도 같은 음성이었을지, 회복을 약속하시며 포로된 현실을 극복하게 하시는 중에 느닷없이 곡을 통한 심판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평안히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땅에서부터 큰 지진을 일으키시는가 하면,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고 전염병과 폭우 등 갖가지 재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위풍당당하던 곡과 연합군이 속절없이 쓰러지고 심판받을 미래가 선포됩니다. "내가 이렇게 뭇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 위엄을 떨치고 나서 거룩함을 밝히 나타내면,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23절) 바벨론보다 더 큰 원수의 세력에서 승리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로된 땅 바벨론에서부터 희망을 얻게 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본문은 백성을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줍니다. 여호와의 영원하신 사랑이 나와 가정을 든든히 세워 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시다.

2. 바벨론보다 큰 세력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안겨 줍니다. 인생의 단계마다 마주치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붙들며 살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7:34~36,39~40 34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 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35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본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36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 찾아볼 길 없더라. 39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40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이때다 하시면

글 **최승근·이소미** (태국 선교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소망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태국 선교 소식을 전합니다.

다들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기도와 후원으로 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전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태국도 큰 타격을 받고 위기도 많았지만, 조금씩 진정되어 갑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에 저희 부부를 비롯하여 태국 선교지 6개의 개척 교회가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은 현지 목회자 가정과 개척 교회를 코로나로부터 지켜 내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목회자 가정에 특별 재정 지원을 하고, 교회들과 함께 지역 사회에 방역 물품과 생계 지원 물품 나눔도 여러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과 마을 주민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서 감사합니다. 어려움도 때로는 선교의 좋은 기회가 됩니다.

태국 중부 지역에서 꾸준하게 교회를 개척하며, 개척된 미자립 교회를 돌보는 사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각 교회들은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서 각자의 존재를 지키고 뿌리내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척 교회들은 대부분 월세살이로 유지되어 왔는데, 2023년을 맞으면서 10년 이상 잘 견뎌 오신 목회자와 교우들이 있는 네 곳 교회에 예배당을 건축해야겠다는 결심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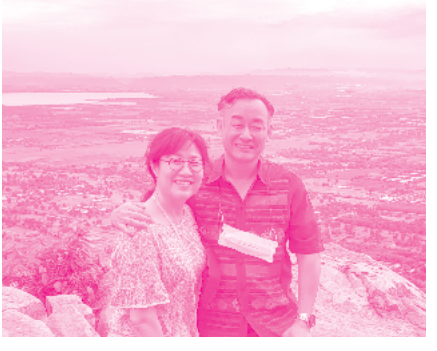
사실 저희는 교회 개척을 할 때 처음부터 예배당을 짓지 않습니다. 현지 목회자와 성도들이 생긴 후에 "이곳이 내 교회다" 하는 마음을 가지기까지 기다렸다가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주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이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태국 개척 교회마다 여건이 달라서 지방 도시에 개척된 교회들은 성도들이 부지를 마련하고, 저희와 한국 교회가 건축을 돕는 협력형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방콕과 수도권 지역은 땅이 비싸서 마을의 큰 주택이나 타운하우스 건물 두 채가 합쳐진 기존 건물 등을 구입해서 리모델링 형식으로 건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음을 주신 주님이 "이때다" 하시면 순종으로 나아가고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마침 3월부터는 안식년이라서 한국에 들어가 후원 교회들을 방문하며 선교 보고도 드리고, 개척 교회의 둥지를 마련하는 일을 상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왼쪽 어깨에 회전근개파열이 생겨서 어깨 수술도 받고, 재활 치료도 병행 중입니다. 안식년을 준비해 주신 주님의 시기 적절함에 놀라고 안심하게 됩니다. 잘 치료받아 온전한 몸으로 사역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후원 교회와 후원자들과의 만남이 깊어지고, 동역하는 선교가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귀한 선교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시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3/5~11

주님은 살아 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시 18:46)

March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 — 월요일

에스겔 39:1~20

오늘의 찬송 374 나의 믿음 약할 때

말씀 속으로

1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Son of man, prophesy against Gog and say: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I am against you, O Gog, chief prince of Meshech and Tubal.

2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I will turn you around and drag you along. I will bring you from the far north and send you against the mountains of Israel.

3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Then I will strike your bow from your left hand and make your arrows drop from your right hand.

4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On the mountains of Israel you will fall, you and all your troops and the nations with you. I will give you as food to all kinds of carrion birds and to the wild animals.

5 네가 빈 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You will fall in the open field, for I have spoken, declares the Sovereign LORD.

6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I will send fire on Magog and on those who live in safety in the coastlands, and they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7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I will make known my holy name among my people Israel. I will no longer let my holy name be profaned, and the nations will know that I the LORD am the Holy One in Israel.

8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It is coming! It will surely take place, declares the Sovereign LORD. This is the day I have spoken of.

9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Then those who live in the towns of Israel will go out and use the weapons for fuel and burn them up - the small and large shields, the bows and arrows, the war clubs and spears. For seven years they will use them for fuel.

10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They will not need to gather wood from the fields or cut it from the forests, because they will use the weapons for fuel. And they will plunder those who plundered them and loot those who looted them," declares the Sovereign LORD.

11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On that day I will give Gog a burial place in Israel, in the valley of those who travel east toward the Sea. It will block the way of travelers, because Gog and all his hordes will be buried there. So it will be called the Valley of Hamon Gog.

12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For seven months the house of Israel will be burying them in order to cleanse the land.

13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All the people of the land will bury them, and the day I am glorified will be a memorable day for them, declares the Sovereign LORD.

14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 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살펴 보되

Men will be regularly employed to cleanse the land. Some will go throughout the land and, in addition to them, others will bury those that remain on the ground. At the end of the seven months they will begin their search.

15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As they go through the land and one of them sees a human bone, he will set up a marker beside it until the gravediggers have buried it in the Valley of Hamon Gog.

16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Also a town called Hamonah will be there.) And so they will cleanse the land."

17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Son of man,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Call out to every kind of bird and all the wild animals: 'Assemble and come together from all around to the sacrifice I am preparing for you, the great sacrifice on the mountains of Israel. There you will eat flesh and drink blood.

39:11 하몬곡의 골짜기
곡의 무리라는 뜻

18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숫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You will eat the flesh of mighty men and drink the blood of the princes of the earth as if they were rams and lambs, goats and bulls - all of them fattened animals from Bashan.

19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At the sacrifice I am preparing for you, you will eat fat till you are glutted and drink blood till you are drunk.

20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At my table you will eat your fill of horses and riders, mighty men and soldiers of every kind, declares the Sovereign LOR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도 남김 없이!(1~16)

본 단락은 곡에 맞서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그중에서 1~5절은 '나' 곧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반복되며 곡과 그 무리의 군대를 전멸시키시는 주권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을 치고자 찾아온 무리뿐만 아니라 마곡 땅에 남아서 평안히 거주하는 사람마저도 심판하시겠다는 경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또한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선포를 더합니다(6~7절). 하나님의 위엄만큼이나 적군이 맛볼 패배는 그야말로 참패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무기를 불태우는 데만도 무려 7년이 걸리고, 하몬곡의 골짜기에 원수의 시체를 매장하는 일만도 7년이 소요될 정도입니다(11~12절). 혹시나 남아 있을 시체가 발견될 때면 매장지인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라는 푯말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성경은 완전수인 숫자 '7'을 반복하며 곡과 연합군에 관한 것은 하나도 남김 없이 정리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열방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비춥니다.

2. 믿음이 환경을 이기게 합니다(17~20).

시체와 그들이 가진 무기까지 사그리 불태워진 뒤에 일어날 일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여 오너라. 내가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큰 잔치를 준비할 터이니, 너희가 사방에서 몰려와서 고기도 먹고 피도 마셔라."(17절) 원수의 시신이 제물로 바쳐지는 대목에서 하나님 스스로 제물을 준비하시고는 이스라엘에게 안겨 주시는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는 한편, 이스라엘을 적대시한 세력이 맞이하게 될 처참한 종말을 가늠하게도 됩니다. 한마디로 승리가 예견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거두게 된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메시지를 아로새기며 머지않아 다가올 구원의 소식을 기대하는가 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비된 축복의 위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에스겔과 유다의 백성은 바벨론이라는 변함없는 현실 속에서도 평안을 얻게 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근심되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무엇이든 하나님께 아뢰이며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안하게 하시는 은혜의 복을 사모합시다.

2.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믿음이 없이는 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안에서 평안을 얻고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4:4~8 4 주님이야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5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적을 쳐부수었으며, 우리를 공격하여 오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짓밟았습니다. 6 내가 의지한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 준 것은 내 칼이 아닙니다. 7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적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셨으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기에, 8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셀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7 — 화요일

마가복음 6:6下~13

오늘의 찬송 487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말씀 속으로

6下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Then Jesus went around teaching from village to village.

7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Calling the Twelve to him, he sent them out two by two and gave them authority over evil spirits.

8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These were his instructions: "Take nothing for the journey except a staff - no bread, no bag, no money in your belts.

9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Wear sandals but not an extra tunic.

10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Whenever you enter a house, stay there until you leave that town.

11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And if any place will not welcome you or listen to you, shake the dust off your feet when you leave, as a testimony against them."

12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They went out and preached that people should repent.

13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They drove out many demons and anointed many sick people with oil and healed them.

6:8 돈
헬라어) '동'

6:10 그곳을 떠나기까지
주님은 제자들을 환대하는 사람의 마음을 고려하여 그의 집에 유하기를 권면하신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며 제자를 파송합니다(6下~9).

거역하는 무리에도 예수님의 행보는 멈추질 않습니다. 아버지가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드리는 일이 예수님 편에서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주님을 배척하는 존재를 알리면서도 모든 촌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열정을 전합니다(6下). 진리가 계시될수록 거짓으로 모함하는 세력이 강렬해졌지만 담대히 그 사이를 뚫고 가시며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거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열두 제자를 둘씩 둘씩 짝을 이루시어 파송하시며 말씀합니다.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 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 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8~9절) 가혹하게 들리는 듯한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는 여벌의 옷과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파송받는 제자들 편에 귀신을 제어할 권능은 허락하신 이유입니다(7절).

2.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주관하십니다(10~13).

그러나 누구보다 예수님 자신이 잘 아시듯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마냥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이에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람들로부터 환대받을 상황과 그렇지 못할 상황을 일러 주십니다(10~11절). 그러면서도 최소한의 것만을 가지고 복음 전도의 길을 걷게 하시는 모습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한편으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를 풀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사역이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복음을 듣고 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구분하는 일은 제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회개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를 초대하는 일에 힘쓸 뿐입니다(12절). 결국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척하는 무리 안으로 파송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를 명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의 삶에 관하여 깨달은 내용을 기록해 봅시다.

2. 주님은 맡기신 사명은 충성되이 감당하되 나머지는 의탁하는 삶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86:8~13 8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어느 신이 하겠습니까? 9 주님께서 지으신 뭇 나라가 모두 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10 주님은 위대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니,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11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12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렵니다. 13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크시니, 스올의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내 목숨을 건져내셨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8 — 수요일

마가복음 6:14~29

오늘의 찬송 455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말씀 속으로

14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King Herod heard about this, for Jesus' name had become well known. Some were saying, "John the Baptis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and that is why miraculous powers are at work in him."

15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Others said, "He is Elijah." And still others claimed, "He is a prophet, like one of the prophets of long ago."

16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But when Herod heard this, he said, "John, the man I beheaded,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17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 두었으니

For Herod himself had given orders to have John arrested, and he had him bound and put in prison. He did this because of Herodias, his brother Philip's wife, whom he had married.

18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For John had been saying to Herod, "It is not lawful for you to have your brother's wife."

19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So Herodias nursed a grudge against John and wanted to kill him. But she was not able to,

20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because Herod feared John and protected him, knowing him to be a righteous and holy man. When Herod heard John, he was greatly puzzled; yet he liked to listen to him.

6:14
헬라어) 또는 '침례'

21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Finally the opportune time came. On his birthday Herod gave a banquet for his high officials and military commanders and the leading men of Galilee.

22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When the daughter of Herodias came in and danced, she pleased Herod and his dinner guests. The king said to the girl, "Ask me for anything you want, and I'll give it to you."

23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And he promised her with an oath, "Whatever you ask I will give you, up to half my kingdom."

24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She went out and said to her mother, "What shall I ask for?" "The head of John the Baptist," she answered.

25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At once the girl hurried in to the king with the request: "I want you to give me right now the head of John the Baptist on a platter."

26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The king was greatly distressed, but because of his oaths and his dinner guests, he did not want to refuse her.

27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So he immediately sent an executioner with orders to bring John's head. The man went, beheaded John in the prison,

28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and brought back his head on a platter. He presented it to the girl, and she gave it to her mother.

29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On hearing of this, John's disciples came and took his body and laid it in a tomb.

6:22 딸이 친히 들어와
또는 친딸이 들어와

6:22 앉은
2:15 난하주를 보라

6:24,25 세례
헬라어) 또는 '침례'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세례 요한은 죽음의 질서에 대항한 선지자입니다(14~20).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예수님과, 환영받지 못할 무리들 안으로 파송되는 제자들이 묘사된 후에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14절). 갈릴리의 분봉왕인 그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 죽인 이력이 있는데, 예수의 명성이 높아지고 따르는 무리가 늘어날수록 두려움이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죽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착각할 정도이니 심리 상태가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됩니다(16절). 제자의 파송 뒤에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의 등장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비추며, 희생과 죽음 없이 생명이 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마가는 그 이야기를 헤롯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벌어진 치정에서 출발하며 욕정과 탐심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바른 소리를 외친 세례 요한의 희생을 꺼내듭니다(17절). 이때에 성경은 헤롯 역시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그의 말에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말합니다(19~20절).

2. 희생과 죽음 뒤에 생명이 납니다(21~29).

반면에 헤롯이 취한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심히 못마땅해 합니다. 불의한 것에 옳은 소리를 내는 목소리가 심기를 건드린 탓인지, 급기야는 요한을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드디어 헤롯의 생일을 맞이하여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는 날, 헤로디아는 '이때다' 싶은 마음으로 딸 살로메를 연회장 안에 들여보냅니다(21~22절). 헤롯을 비롯하여 고위급 남자들만이 출입한 자리에서 춤으로 이목을 사로잡을 정도였으니, 과연 그 어미에 그 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점차 달아오르는 분위기 속에서 헤롯은 스스로 내뱉은 섣부른 말에 걸려 넘어지고, 어머니 헤로디아를 대신하여 딸 살로메가 요한의 머리를 요청합니다(24~26절). 그때에 헤롯이 '잠시' 근심한 건 사실이나, 최종적인 결단은 헤롯이 무엇에 이끌리어 산 인물인지를 느끼게 합니다(27절). 그 한편에서 광야 같은 세상을 향하여 의의 길을 외친 세례 요한은 결국 죽음을 맞지만, 마가는 그의 희생과 죽음 뒤에 솟아난 생명을 암시하는 듯 오병이어 사건을 뒤이어 소개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세례 요한은 표면적으로는 헤롯과 헤로디아의 불륜을 부정했으나 근원에는 배신과 욕정에 둘러싸인 세상에 맞서고 있습니다. 1장에 기록된 그의 외침을 다시금 묵상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2. 하나님의 길엔 희생과 죽음이 따르지만 결국엔 싹이 나게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선택을 내리며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29:1~8 1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2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 내지
를 못했다. 3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4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 주셨다." 5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
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 6 그들은 지붕 위의 풀같이 되어, 자라기도 전에 말라 버리고 만다. 7 베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묶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아 8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너
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 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9
—
목요일

마가복음 6:30~44

오늘의 찬송 286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말씀 속으로

30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The apostles gathered around Jesus and reported to him all they had done and taught.

31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Then, because so many people were coming and going that they did not even have a chance to eat, he said to them, "Come with me by yourselves to a quiet place and get some rest."

32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So they went away by themselves in a boat to a solitary place.

33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But many who saw them leaving recognized them and ran on foot from all the towns and got there ahead of them.

3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When Jesus landed and saw a large crowd, he had compassion on them, because they were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So he began teaching them many things.

35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By this time it was late in the day, so his disciples came to him. "This is a remote place," they said, "and it's already very late.

36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Send the people away so they can go to the surrounding countryside and villages and buy themselves something to eat."

37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백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But he answered,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They said to him, "That would take eight months of a man's wages! Are we to go and spend that much on bread and give it to them to eat?"

6:37 데나리온
은전의 명칭이다. 이백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명의 200일치 임금이다.

38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How many loaves do you have?" he asked. "Go and see." When they found out, they said, "Five - and two fish."

39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Then Jesus directed them to have all the people sit down in groups on the green grass.

40 떼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

So they sat down in groups of hundreds and fifties.

41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Taking the five loaves and the two fish and looking up to heaven, he gave thanks and broke the loaves. Then he gave them to his disciples to set before the people. He also divided the two fish among them all.

42 다 배불리 먹고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43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and the disciples picked up twelve basketfuls of broken pieces of bread and fish.

44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었더라

The number of the men who had eaten was five thousan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30~34).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명령과 함께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됩니다(6:7~29). 그리고 이어지는 본 단락은 오병이어 사건을 소개하며 죽음이 따르지 않고는 생명이 날 수 없다는 가르침을 은연중에 전합니다. 때마침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향하여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31절) 그러나 움직이는 제자들을 따라 무리들이 앞다투어 나서며 저 앞에서 벌써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갖춥니다(32~33절). 정신없이 달려온 한걸음에 예수님은 무리들의 허기진 마음을 읽으셨는데, 성경은 그날에 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록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34절) 헤롯과 지도자들이 잔치를 벌이며 배불리 먹고 마시는 중에 우리 주님은 갈한 영혼들을 긍휼히 받으시며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 세상에 오신 자신을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2. 예수님이 음식을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35~44).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무리들은 예수님 앞에 모여 가르침을 받습니다. 달콤하고도 달콤했을 주님의 말씀에 영혼도 살찌어지는 순간, 제자들이 시장할 무리들을 위하여 주님께 부탁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36절)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로 무리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자 당황한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이백 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37절) 이번에는 놀란 그들을 타이르시는 듯 차분한 음성으로 떡 몇 개가 있는지 살펴보게 하셨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떼어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38~41절). 심지어 떡을 먹은 남자만도 오천 명일 정도로 많은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을 만큼 풍성한 음식이 제공됩니다(43~44절).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과, 그의 뒤를 따라 무리를 먹일 제자의 사명이 새겨 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다른 이의 생명을 죽인 헤롯과 달리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영과 육을 살찌우십니다. 헤롯과 예수님을 비교하며 나는 과연 살리는 자로서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2.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생명을 참되이 부요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45:15~17 15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16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 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17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0 — 금요일

마가복음 6:45~52

오늘의 찬송 407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말씀 속으로

45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새다로 가게 하시고

Immediately Jesus made his disciples get into the boat and go on ahead of him to Bethsaida, while he dismissed the crowd.

46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After leaving them, he went up on a mountainside to pray.

47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뭍에 계시다가

When evening came, the boat was in the middle of the lake, and he was alone on land.

48 바람이 거스르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He saw the disciples straining at the oars, because the wind was against them. About the fourth watch of the night he went out to them, walking on the lake. He was about to pass by them,

49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but when they saw him walking on the lake, they thought he was a ghost. They cried out,

50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because they all saw him and were terrified. Immediately he spoke to them and said,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51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Then he climbed into the boat with them, and the wind died down. They were completely amazed,

52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for they had not understood about the loaves; their hearts were hardene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수님 홀로 산에 오르십니다(45~46).

요한복음에 의하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 무리들에게 외칩니다.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요 6:14) 그러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모여드는 무리들을 피하여 물러나셨다고 기록됩니다(요 6:15). 이와 달리 마가복음은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시며 건너편 벳새다 지역으로 가도록 명하시는 모습에 초점을 둡니다(45절). 지팡이와 한 벌의 신, 한 벌의 옷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든든하게 채비한 제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벳새다로 이동하는 동안에 무리와 작별을 마치신 주님이 산에 오르십니다(46절). 목자 없는 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양식을 풍성히 먹이신 주님도 한적한 산에 홀로 오르셔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채움을 받으신 것입니다. 겸손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2.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바람이 잠잠해집니다(47~52).

날이 저물어 가고 제자들이 탄 배는 어느새 바다 가운데에 있습니다(47절). 산에 계신 주님과 제자들과의 사이가 제법 벌어졌으리라 추측되는 이때, 바람이 거세어지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습니다(48절). 이를 어떻게 아셨는지, 두려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는 가까이 다가오시는가 싶더니 도리어 지나치시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뒷모습에 제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유령이 나타났다고 착각하며 소리칩니다(49절). 이제는 출렁이는 바다보다도 크게 요동치는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50절) 말씀과 함께 배에 오르시니 눈 깜짝할 사이에 바람이 그칩니다(51절). 예수님이 부재하시면 두려움에 빠지다 못해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이지만, '밤 사경' 곧 어둠이 물러나기 시작하는 새벽 3~6시 사이에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가 또다시 임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장소인 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채움을 받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곧 겸손한 자리임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시다.

2. 연약한 제자들을 한없이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이 땅의 교회가 주인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6:43~47 43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번 건져 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하여 거역하며, 자신들의 죄악으로 더욱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44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45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어, 46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47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1
—
토요일

에스겔 39:21~29

오늘의 찬송 456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말씀 속으로

21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I will display my glory among the nations, and all the nations will see the punishment I inflict and the hand I lay upon them.

22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From that day forward the house of Israel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their God.

23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And the nations will know that the people of Israel went into exile for their sin, because they were unfaithful to me. So I hid my face from them and handed them over to their enemies, and they all fell by the sword.

24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I dealt with them according to their uncleanness and their offenses, and I hid my face from them."

25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Therefore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I will now bring Jacob back from captivity and will have compassion on all the people of Israel, and I will be zealous for my holy name.

26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They will forget their shame and all the unfaithfulness they showed toward me when they lived in safety in their land with no one to make them afraid.

27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When I have brought them back from the nations and have gathered them from the countries of their enemies, I will show myself holy through them in the sight of many nations.

11
—
토

28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Then they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their God, for though I sent them into exile among the nations, I will gather them to their own land, not leaving any behind.

29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I will no longer hide my face from them, for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the house of Israel, declares the Sovereign LOR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 스스로 얼굴을 드시겠다고 결단합니다(21~24).

본 단락은 하나님이 곡과 그 연합군을 치신 목적을 밝힙니다. "내가 이와 같이 여러 민족 가운데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내가 어떻게 심판을 집행하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내 권능을 나타내는지 여러 민족이 직접 볼 것이다."(21절)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영광을 두루 나타내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심판받는 곡을 바라보면서 이전의 포로된 신세를 회고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민족임을 실감할 듯도 합니다. 그렇게 멸망하는 이방 민족을 보면서 이스라엘 스스로 죄악을 뉘우치는 모습 속에 한때는 백성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시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되기도 합니다(24절). 그러나 다시금 여호와의 환한 얼굴 빛이 비추어지는 은혜가 임하는데, 백성이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결단하신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습니다.

2.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25~29).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과 함께 이야기는 그들이 마주한 현실 안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는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자손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며, 내 거룩한 이름을 열심히 내어 지키겠다."(25절) 미래에 일어날 곡의 침략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겠다는 약속 아래,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을 약속의 표징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물론이고 이방 곳곳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도 남김 없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 안에서 숫자가 차마 담지 못하는 은혜의 세계를 느끼게도 됩니다. 즉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안보해 주시겠다는 맹세입니다. 자식이 범사에 잘되는 길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는 일이자, 그들을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또한 자신의 영을 부어 주시며 영원히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그들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29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정,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일에 깨어 있습니까?

2. 자녀가 범사에 잘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며 그 마음으로 이 땅을 향해 간구하는 마음이 자라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56:10~13 [10]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11]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12]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13]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열렸다 봉사학교!
함께 가자 봉사현장!

2019년도 사회봉사학교를 통해 소망의 많은 성도들이 이웃 섬김의 자리를 채운 일은 우리에게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섬김의 손발이 묶여 버렸고, 봉사학교도 중단되어 어려운 이웃을 돕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발만 동동거린 지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행 20:35)

그리고 이제 우리는 2023년도 사회봉사학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소망의 많은 성도님들이 주는 자가 복된 삶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학교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총 7회에 걸쳐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준비하여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선교적 교회와 봉사에 대해 이해하고, 순모임 활동으로 서로 격려하며, 여러 봉사의 경험을 통해 개개인에게 맞는 봉사처를 찾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노숙인을 위한 한 끼 식사, 불우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작은 관심, 장애인 기관들을 위한 후원, 외로운 어르신들의 말동무, 호스피스 환우들과 함께하는 찬양과 기도…. 이렇듯 많은 이웃들이 생명을 살리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 잡고 섬김의 현장으로 함께 달려갑시다!

소망교회

사회봉사부에서 23년 사회봉사학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웃사랑의 소명이 있으신
소망교회 성도님 누구나 환영합니다!

교육일시	3월 10일, 4월 14일, 5월 12일, 6월 9일, 7월 7일, 9월 8일, 10월 13일(금)
교육시간	오후 7:20 ~오후 9:00
봉사실습	노숙인. 호스피스. 독거어르신. 아동청소년. 장애인
모집인원	선착순 60명
접 수 처	선교관앞. 사회봉사센터. 온라인접수
접수기간	2월 19일부터 인원마감까지
신청문의	010-5620-5770 (강수자 팀장)
주 관	소망교회 사회봉사부

신청바로 하기

사회봉사학교 교육생
신청하기 QR코드

12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3/12~18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시 62:1)

March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3 — 월요일

에스겔 40:1~16

오늘의 찬송 524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말씀 속으로

1 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 성이 함락된 후 열넷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In the twenty-fifth year of our exile,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on the tenth of the month, in the fourteenth year after the fall of the city - on that very day the hand of the LORD was upon me and he took me there.

2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In visions of God he took me to the land of Israel and set me on a very high mountain, on whose south side were some buildings that looked like a city.

3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He took me there, and I saw a man whose appearance was like bronze; he was standing in the gateway with a linen cord and a measuring rod in his hand.

4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The man said to me, “Son of man, look with your eyes and hear with your ears and pay attention to everything I am going to show you, for that is why you have been brought here. Tell the house of Israel everything you see.”

5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여섯 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I saw a wall completely surrounding the temple area. The length of the measuring rod in the man's hand was six long cubits, each of which was a cubit and a handbreadth. He measured the wall; it was one measuring rod thick and one rod high.

6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Then he went to the gate facing east. He climbed its steps and measured the threshold of the gate; it was one rod deep.

40:5 장대
약 50cm 길이의 자로 측량 단위에 속한다.

13
—
월

7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방 사이 벽이 다섯 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 문이 있으며

The alcoves for the guards were one rod long and one rod wide, and the projecting walls between the alcoves were five cubits thick. And the threshold of the gate next to the portico facing the temple was one rod deep.

8 그가 또 안 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Then he measured the portico of the gateway;

9 안 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여덟 척이요 그 문 벽은 두 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it was eight cubits deep and its jambs were two cubits thick. The portico of the gateway faced the temple.

10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Inside the east gate were three alcoves on each side; the three had the same measurements, and the faces of the projecting walls on each side had the same measurements.

11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열 척이요 길이가 열세 척이며

Then he measured the width of the entrance to the gateway; it was ten cubits and its length was thirteen cubits.

12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여섯 척이요 저쪽도 여섯 척이며

In front of each alcove was a wall one cubit high, and the alcoves were six cubits square.

13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 가에서 저 방 지붕 가까지 너비가 스물다섯 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Then he measured the gateway from the top of the rear wall of one alcove to the top of the opposite one; the distance was twenty-five cubits from one parapet opening to the opposite one.

14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스무 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He measured along the faces of the projecting walls all around the inside of the gateway - sixty cubits. The measurement was up to the portico facing the courtyard.

40:8
고대 사본에는, 8절이 없음

40:14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스무 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히브리어)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육십 암마씩이요 문 사면에 뜰이 있어 기둥까지 미쳤으며'

13
월

15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 문 현관 앞까지 쉰 척이며

The distance from the entrance of the gateway to the far end of its portico was fifty cubits.

16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The alcoves and the projecting walls inside the gateway were surmounted by narrow parapet openings all around, as was the portico; the openings all around faced inward. The faces of the projecting walls were decorated with palm tree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재건될 성전이 환상 중에 보입니다(1~5).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는 선포에 이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미래가 그려집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인 만큼 재건될 성전 환상은 이스라엘,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성전 삼아 거하실 하나님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포로된 지 25년이 되는 해, 즉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된 지 14년째에 여호와의 손이 환상 속에 에스겔을 강력히 이끌며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합니다(1절). 그리고 그곳의 매우 높은 산 위에서 에스겔은 성읍 환상을 보게 됩니다(2절). 성읍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측량 도구를 들고 선 여호와의 천사가 문지기처럼 서 있는데, 그가 말합니다. "사람아, 내가 네게 보여 주는 모든 것을 네 눈으로 잘 보고, 네 귀로 잘 듣고, 네 마음에 새겨 두어라. 이것을 네게 보여 주려고, 너를 이곳으로 데려 왔다. 네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 주어라."(4절) 환상을 잘 전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회복될 관계를 전하는 일이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2. 환상 중에 에스겔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6~16).

새롭게 지어질 성전의 설계도가 구체적으로 소개됩니다. 에스겔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성전을 둘러싸며 보호하는 담으로 두께와 높이가 각각 한 장대, 약 6미터에 달했다고 전해집니다. 담을 통과하여 들어가니 동쪽, 남쪽, 북쪽 방향으로 난 세 문이 보이는데, 이때에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동쪽 문으로 에스겔을 이끌어 들이며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이 구원으로 역전될 미래를 알립니다. 여기에 문간마다 설치된 문지기의 방은 교회와 세상 즉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던 이스라엘의 사고를 엿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천사는 에스겔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점차 이동시키며 하나님이 임재하실 민족의 영광스런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한편, 환상을 전해 듣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되묻기도 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환상 중에 일어난 일들을 잘 보고, 잘 듣고, 잘 전하는 것이 에스겔의 임무였습니다. 동일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리며 나의 삶을 돌아봅시다.

2.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동쪽 문으로 에스겔을 다시 인도하시며 지나간 역사를 회복시키시는 손길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 땅이 다시 열려지는 회복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5:1~6 [1]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2]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 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3]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4]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5]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6]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4 마가복음 6:53~56

화요일

오늘의 찬송 321 날 대속하신 예수께

말씀 속으로

53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When they had crossed over, they landed at Gennesaret and anchored there.

54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As soon as they got out of the boat, people recognized Jesus.

55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They ran throughout that whole region and carried the sick on mats to wherever they heard he was.

56 아무 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And wherever he went - into villages, towns or countryside - they placed the sick in the marketplaces. They begged him to let them touch even the edge of his cloak, and all who touched him were heale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수님이 게네사렛 지방에 가십니다(53~54).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바다 건너편 벳새다에 가도록 명하셨습니다(6:45). 그런데 흥미롭게도 본 단락은 그들이 배를 타고 이른 곳이 벳새다가 아닌 '게네사렛' 땅이라고 밝힙니다(53절). 8장에 가서야 벳새다 지명이 거론되는데, 학자들마다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 차이를 보이는 듯합니다. 그중에는 배를 타고 가던 중 거세게 부는 바람때문에 본래 목적지인 벳새다를 벗어나 이곳 게네사렛에 당도했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성경은 이유를 정확하게 해명하기보다 게네사렛 땅에 도착한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하는 무리에 집중합니다(54절). 그것도 '곧',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든 셈인데,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면서도 정작 알지 못한 어리석은 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과는 사뭇 다른 마가의 심정이 느껴집니다(6:52).

2. 어둠이 게네사렛에서 물러납니다(55~56).

예수님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한 제자들이지만, 그들조차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6:49).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보고 즉시로 달려온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55절) 한마디로 온전치 않은 몸과 마음을 가진 자들이 곳곳에서 나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셨는지 주님은 예고치 않게 도착한 게네사렛 땅인데도 불구하고 지방, 도시, 마을 곳곳을 두루 다니시며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56절). 그러자 본래 사람들 사이에서 부정함을 초래하는 장소로 여겨지던 '시장'이 정결케 하는 장소로 변화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로마의 지배 아래 묶인 게네사렛 땅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어둠을 내쫓고 생명을 싹트게 하셨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게네사렛에 도착한 이유가 정확하게 명시되진 않지만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며 선한 인도함이 따르기를 기도합시다.

2. 예수님이 머무르시자 죽음의 땅에 빛이 스며듭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을 아뢰어 드립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6:1~3,10~11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2]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3]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셀라) [10] 너희는 잠
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뭇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
다. [11]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5 — 수요일

마가복음 7:1~13

오늘의 찬송 254 내 주의 보혈은

말씀 속으로

1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The Pharisees and some of the teachers of the law who had come from Jerusalem gathered around Jesus and

2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saw some of his disciples eating food with hands that were "unclean," that is, unwashed.

3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The Pharisees and all the Jews do not eat unless they give their hands a ceremonial washing, holding to the tradition of the elders.

4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When they come from the marketplace they do not eat unless they wash. And they observe many other traditions, such as the washing of cups, pitchers and kettles.)

5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So the Pharisees and teachers of the law asked Jesus, "Why don't your disciples live according to the tradition of the elders instead of eating their food with 'unclean' hands?"

6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He replied, "Isaiah was right when he prophesied about you hypocrites; as it is written: 'These people honor me with their lips, but their hearts are far from me.

7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They worship me in vain; their teachings are but rules taught by men.'

7:3 손을
또는 팔뚝까지

7:4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또는 목욕하지 않으면

7:6 사 29:13

15
—
수

8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You have let go of the commands of God and are holding on to the traditions of men."

9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And he said to them: "You have a fine way of setting aside the commands of God in order to observe your own traditions!

10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For Moses said,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and, 'Anyone who curses his father or mother must be put to death.'

11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But you say that if a man says to his father or mother: 'Whatever help you might otherwise have received from me is Corban' (that is, a gift devoted to God),

12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then you no longer let him do anything for his father or mother.

13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Thus you nullify the word of God by your tradition that you have handed down. And you do many things like that."

7:10 출 20:12; 신 5:16

7:11 고르반
하나님께 헌납하도록 허용하는 관습이다. 관습에 따르면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를 봉양하는 의무를 피할 수 있거나, 법적으로 부양할 수 없는 처지로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수님이 정결의 기준입니다(1~5).

게네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장소적 배경이 변화되는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1절). 예수님과의 갈등이 어렵지 않게 연상되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적대심 가득한 이들의 눈에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떼는 제자 몇 사람이 들어옵니다(2절). 이때야말로 기회다 싶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따지듯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5절) 유대 전통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손을 씻고 거룩한 음식을 먹었는데, 이 전통을 제자들에게 적용시키며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항변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인간이 만든 전통을 준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정결한 삶을 논하는 율법학자들의 사고에 반문을 제기하시며 전통이 우선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지를 되묻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부정하게 여겨진 시장을 구원의 장소로 변혁시키시며 그분이 곧 정결의 기준이 되심을 알려 주기도 하셨습니다(4절; 6:56).

2.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전통이냐!(6~13)

그동안 마가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며, 주님과 맞닿을 때에 비로소 정결해지는 인간을 조명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이 죄 사함을 받으며 거룩해질 수 있다는 진리를 전한 셈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이어서 본 단락은 범위를 보다 좁히며 '마음'의 정결함이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든지 아니든지, 혹은 시장에 다녀왔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사람의 마음이 부정함의 근원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시고자 예수님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듯하나 실상은 사람이 세운 전통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을 찌르셨고, 관습을 악용하여 부모를 잘 섬기라는 계명을 어기는 죄악된 현실을 지적하기도 하십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만고불변의 법칙이지만, 이것을 잊은 사람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마가는 정결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에 주목하면서 이방 땅에 들어가시고 이방인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반복해서 기술합니다. 행위가 아닌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성도의 거룩한 삶을 맛보고 있습니까?

2.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묵상 중에 떠오르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정직하게 고백하며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2:5~7,12~15 5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6 우둔한 자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7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12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13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14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15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6 — 목요일

마가복음 7:14~23

오늘의 찬송 250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말씀 속으로

14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Again Jesus called the crowd to him and said, "Listen to me, everyone, and understand this.

15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Nothing outside a man can make him 'unclean' by going into him. Rather, it is what comes out of a man that makes him 'unclean.'"

16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17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After he had left the crowd and entered the house, his disciples asked him about this parable.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Are you so dull?" he asked. "Don't you see that nothing that enters a man from the outside can make him 'unclean'?

19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For it doesn't go into his heart but into his stomach, and then out of his body." (In saying this, Jesus declared all foods 'clean.')

20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He went on: "What comes out of a man is what makes him 'unclean.'

21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For from within, out of men's hearts, come evil thoughts, sexual immorality, theft, murder,

22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adultery, greed, malice, deceit, lewdness, envy, slander, arrogance and folly.

23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All these evils come from inside and make a man 'unclean.'"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무리를 위하시는 예수님이 묘사됩니다(14~16).

외식된 행위가 아닌 마음속에 자리한 동기를 살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율법학자라 하는 자들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으며 살고 있는지를 반문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는 거침없이 질책하시면서도 함께하는 무리들에게는 말씀의 의미를 풀이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15절) 손을 씻고 음식을 먹든지 그렇지 않든지, 사실 두 행위는 거룩함과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주님은 사람 마음 안에 든 것들을 일일이 지목하시며 예수님과 연합된 마음 없이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에 주님은 곁에 선 무리들에게 반복해서 부탁하시며,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믿고 따르도록 인도하십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14절)

2. 정결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17~23).

한편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김없이 나타납니다(17절). 그 모습에 주님은 탄식을 연발하시면서도 제자들의 부탁을 따라 말씀의 의미를 재해석해 주셨습니다(18절). 이때에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권위'나 그들이 가진 '지식'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여김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달라서 정결한 마음 없는 행위는 무익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시는 듯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온갖 악한 것들 -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등 - 이 하나하나 지목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그리고 어떻게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없이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둔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이유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백성의 개념을 포괄하는 무리 안에는 아이, 여자, 노예, 이방인이 포함됩니다. 소외된 이들과 계속해서 함께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록해 봅시다.

2. 마음의 회복을 명하시는 말씀에 비추어 지위나 지식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섬기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5:16~18,21 [16]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17]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18]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 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21]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 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7 — 금요일

마가복음 7:24~30

오늘의 찬송 272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말씀 속으로

24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Jesus left that place and went to the vicinity of Tyre. He entered a house and did not want anyone to know it; yet he could not keep his presence secret.

25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In fact, as soon as she heard about him, a woman whose little daughter was possessed by an evil spirit came and fell at his feet.

26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The woman was a Greek, born in Syrian Phoenicia. She begged Jesus to drive the demon out of her daughter.

27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First let the children eat all they want," he told her, "for it is not right to take the children's bread and toss it to their dogs."

28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Yes, Lord," she replied, "but even the dogs under the table eat the children's crumbs."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Then he told her, "For such a reply, you may go; the demon has left your daughter."

30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She went home and found her child lying on the bed, and the demon gon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24~27).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이동하십니다(24절). 이스라엘 북쪽 해안에 위치한 두로는 토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서 나는 식량을 공급받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해상 도시로 제법 명성을 떨친 두로는 만족할 줄 모른 채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곳을 지금 주님이 찾으시고는 사람들을 피해 잠시 쉼을 얻고자 하셨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두로 지역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모여드는 무리 중에서도 특히나 수로보니게 여인이 집중되며 그녀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방 여인인 그녀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고통당하는 자식을 보는 일만큼 끔찍한 게 없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자신을 개에게 비유하는 음성에도 간청을 마다하지 않습니다(26~27절). 이제 그녀를 향한 예수님의 'no'가 사실은 'yes'를 확증시켜 주시는 방식이었음이 드러납니다.

2. 딸의 치유 속에 여인도 구원을 받습니다(28~30).

예수님의 음성에 얼마든지 마음이 상했을 만도 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28절) 딸을 향한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느껴지는가 하면, 부유한 그녀가 이토록 자신을 낮추어야 했던 버거운 현실을 실감하게 만듭니다. 이방인을 멀리하는 유대인의 사고마저도 기꺼이 감싸 안으며 겸손히 고백하는 그녀를 보시자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29절) 말씀에 의지하여 집으로 돌아가니 정말로 딸 아이가 회복되어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미명의 딸 아이 뿐만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의 삶이 총체적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방의 땅, 이방의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며 만유의 구세주로 오신 자신을 계시하고 계셨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이방인을 개로 여긴 유대의 전통을 수용하시는 듯하면서도 변혁시키신 예수님의 지혜를 헤아리며, 그 지혜가 나에게도 임하길 사모합시다.

2. 딸의 치유를 통하여 여인도 구원받는 사건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속한 신앙공동체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믿음의 행보를 이어 가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1:14~16 14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 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 주겠다. 15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 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16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 주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8

토요일

에스겔 40:17~27

오늘의 찬송 531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말씀 속으로

17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서른이며

Then he brought me into the outer court. There I saw some rooms and a pavement that had been constructed all around the court; there were thirty rooms along the pavement.

18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It abutted the sides of the gateways and was as wide as they were long; this was the lower pavement.

19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백 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Then he measured the distance from the inside of the lower gateway to the outside of the inner court; it was a hundred cubits on the east side as well as on the north.

20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Then he measured the length and width of the gate facing north, leading into the outer court.

21 길이는 쉰 척이요 너비는 스물다섯 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Its alcoves - three on each side - its projecting walls and its portico had the same measurements as those of the first gateway. It was fifty cubits long and twenty-five cubits wide.

22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Its openings, its portico and its palm tree decorations had the same measurements as those of the gate facing east. Seven steps led up to it, with its portico opposite them.

23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 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 척이더라

There was a gate to the inner court facing the north gate, just as there was on the east. He measured from one gate to the opposite one; it was a hundred cubits.

24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Then he led me to the south side and I saw a gate facing south. He measured its jambs and its portico, and they had the same measurements as the others.

18
—
토

25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쉰 척이요 너비는 스물다섯 척이며

The gateway and its portico had narrow openings all around, like the openings of the others. It was fifty cubits long and twenty-five cubits wide.

26 또 그리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 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Seven steps led up to it, with its portico opposite them; it had palm tree decorations on the faces of the projecting walls on each side.

27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 척이더라

The inner court also had a gate facing south, and he measured from this gate to the outer gate on the south side; it was a hundred cubit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동문으로 들어온 에스겔 앞에 바깥뜰이 펼쳐집니다(17~23).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과 출입을 지키는 문지기의 방이 소개된 데 이어(40:1~16), 성전의 각 구조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집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각 구조물의 치수를 측량하여 기록한 값들은 어느 것 하나 그냥 지어지지 않은 성전의 위엄을 알리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죄로부터 돌이켜 여호와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요청하시는 음성을 담고 있습니다. 동쪽, 남쪽, 북쪽으로 난 바깥문 중에서 동문으로 들어온 천사와 에스겔이 이번에는 '바깥뜰'을 마주합니다. 이때에 들어오기 전 문 앞에는 일곱 층계가 놓여 있었는데, 지면에서 한층 떨어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표현합니다. 바깥뜰 안에는 박석 곧 돌이 깔린 땅이 삼면을 둘러싸고 있고, 각 삼면에는 일명 예배자들의 방이라 불리는 서른 개의 방이 위치합니다. 아마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은 제사장들이 임시적으로 거처했던 숙소로 보입니다.

2. 에스겔이 동문을 거쳐 종려나무가 새겨진 북문과 남문을 봅니다(24~27).

동문으로 들어와 박석이 깔린 바깥뜰을 본 에스겔이 이어서 북문과 남문을 차례로 보게 됩니다. 사실 동문이나 북문, 남문 모두 동일한 너비와 길이를 가진 점에서 천사가 그로 하여금 세 문을 전부 보도록 한 것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에스겔이 같은 문을 반복해서 보는 과정을 통하여 환상이 현실로 이루어질 날을 확신하며 소망 중에 기다리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편으로 각 문에는 종려나무 모양이 새겨져 있는데, 이 나무는 에스겔의 마음을 더욱 견고하게 이끌어 주었을 듯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평화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 문마다 새겨진 형상을 보면서 머지않아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굴을 돌이키시고 모든 억압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성전 환상은 전하는 자 에스겔 자신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훈련 안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성전에 난 바깥문 옆에 제사장의 방이 자리하는 설계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의 교회, 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 있습니까?

2. 모양 하나도 그냥 설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며, 그의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을 사모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6:8~11 [8]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9]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10]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1]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 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마트가 아니라 마태! 그리고 사순절

글 **홍성민** (부목사)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무엇부터 가르치는가? 자녀들이 들을 줄 알 무렵에 우리는 무엇을 들려주는가? 우리 집 아이가 문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한글을 막 읽기 시작할 때가 기억난다. 조금씩 문자를 읽어 보라고 시키는데 재미있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 유아세례 때 받은 어린이 성경책을 아이가 잠들기 전에 읽어주곤 했었다. 한번은 엄마와 아이가 읽어 나가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었다.

엄마가 아이에게 말한다. "읽어 볼래?" 아이는 "베~드~로" "또 이거는?" "마~" "그렇지. 마! 그리고??" "트!" 순간 모두가 빵 터졌다. "마트? L마트? E마트? 무슨 마트? 아이고 갑자기 마트가 생각났어요?" 본인도 머쓱했는지 깔깔대고 한참을 웃었다.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순절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유월절이다. 나 또한 이방인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유월절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있지만, 기독교의 성만찬에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재해석한 빵과 포도주의 상징적 의미만이 남아 있을 뿐, 구약의 유월절이 본디 지니고 있는 생생한 역사적 의미가 단절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우리가 지키는 사순절은 매우 엄숙한 분위기와 개인적인 경건 속에서 지켜지지만, 유대인들은 출애굽 해방과 자유를 축제와 승리의 날로 기념하며 지킨다. 무엇보다 가정을 중심으로 공동체적으로 지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스라엘에서 유월절 식사에 초대되면 종종 저녁 식사를 미리 하고 가라고 귀띔해 주곤 한다. 보통 저녁 7시에 시작하는 유월절 예식은 아무리 빨리 해도 두 시간 가까이 걸리고, 공복 상태에서 누룩 없는 빵과 함께 포도주를 적어도 세 잔 이상 마셔야 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가정에서 유월절 식탁을 차려놓고 어린이들에게 출애굽의 구원 역사부터 가르치고, 그 과거 사건을 현재적 사건으로 재연시키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이 현

재적 삶을 어떻게 도우시고 변혁시키는지를 토론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축복한다. 나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신앙의 진정한 힘이라고 본다.

예식의 한 순서에는 가장 어린아이가 '네 개의 질문'을 하는 시간이 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출 12:26)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부모가 대답해 주어야 한다.

도입 : 왜 오늘 저녁은 다른 저녁들과는 다른가요?
첫째 질문 : 다른 모든 날에는 유교병을 먹더니, 왜 오늘 밤은 무교병을 먹나요?
둘째 질문 : 다른 모든 날에는 온갖 채소를 먹더니, 왜 오늘 밤은 쓴 나물을 먹나요?
셋째 질문 : 다른 모든 날에는 그릇을 물에 한 번 담그더니, 왜 오늘 밤은 두 번 담그나요?
넷째 질문 : 다른 모든 날에는 앉아서 먹더니, 왜 오늘 밤은 기대서 먹나요?

유월절과 이어지는 칠일간의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은 집안 모든 곳의 '누룩'을 찾아 불에 소각하는 행사를 갖는다. 이처럼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출애굽 구원의 역사,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역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이집트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을 전수하는 소중하고도 환희에 찬 시간이다.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월절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었다!

사순절 기간은 정말이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의 기쁨과 승리를 가정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만끽하는 날들이다. 여러분의 각 가정 안에서 의미 있는 사순절 행사를 마련해 보기를 적극 추천해 본다. 혹,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Avadim Hayinu"(노예들이었네, 우리는)라는 유월절 세데르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란다.

19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3/19~25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주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시 68:20)

March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 에스겔 40:28~49

월요일

오늘의 찬송 38 예수 우리 왕이여

말씀 속으로

28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Then he brought me into the inner court through the south gate, and he measured the south gate; it had the same measurements as the others.

29 길이가 쉰 척이요 너비가 스물다섯 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Its alcoves, its projecting walls and its portico had the same measurements as the others. The gateway and its portico had openings all around. It was fifty cubits long and twenty-five cubits wide.

30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스물다섯 척이요 너비는 다섯 척이며

(The porticoes of the gateways around the inner court were twenty-five cubits wide and five cubits deep.)

31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Its portico faced the outer court; palm trees decorated its jambs, and eight steps led up to it.

32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Then he brought me to the inner court on the east side, and he measured the gateway; it had the same measurements as the others.

33 길이가 쉰 척이요 너비가 스물다섯 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Its alcoves, its projecting walls and its portico had the same measurements as the others. The gateway and its portico had openings all around. It was fifty cubits long and twenty-five cubits wide.

34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Its portico faced the outer court; palm trees decorated the jambs on either side, and eight steps led up to it.

40:30
어떤 사본에는, 30절이 없음

20
월

35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Then he brought me to the north gate and measured it. It had the same measurements as the others,

36 길이가 쉰 척이요 너비가 스물다섯 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as did its alcoves, its projecting walls and its portico, and it had openings all around. It was fifty cubits long and twenty-five cubits wide.

37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Its portico faced the outer court; palm trees decorated the jambs on either side, and eight steps led up to it.

38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A room with a doorway was by the portico in each of the inner gateways, where the burnt offerings were washed.

39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In the portico of the gateway were two tables on each side, on which the burnt offerings, sin offerings and guilt offerings were slaughtered.

40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By the outside wall of the portico of the gateway, near the steps at the entrance to the north gateway were two tables, and on the other side of the steps were two tables.

41 문 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여덟 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So there were four tables on one side of the gateway and four on the other - eight tables in all - on which the sacrifices were slaughtered.

42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There were also four tables of dressed stone for the burnt offerings, each a cubit and a half long, a cubit and a half wide and a cubit high. On them were placed the utensils for slaughtering the burnt offerings and the other sacrifices.

40:37 현관
히브리어) '문설주'

20
—
월

43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And double-pronged hooks, each a handbreadth long, were attached to the wall all around. The tables were for the flesh of the offerings.

44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Outside the inner gate, within the inner court, were two rooms, one at the side of the north gate and facing south, and another at the side of the south gate and facing north.

45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He said to me, "The room facing south is for the priests who have charge of the temple,

46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and the room facing north is for the priests who have charge of the altar. These are the sons of Zadok, who are the only Levites who may draw near to the LORD to minister before him."

47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 척이요 너비는 백 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Then he measured the court: It was square - a hundred cubits long and a hundred cubits wide. And the altar was in front of the temple.

48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다섯 척이요 저쪽도 다섯 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세 척이요 문 저쪽도 세 척이며

He brought me to the portico of the temple and measured the jambs of the portico; they were five cubits wide on either side. The width of the entrance was fourteen cubits and its projecting walls were three cubits wide on either side.

49 그 현관의 너비는 스무 척이요 길이는 열한 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 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The portico was twenty cubits wide, and twelve cubits from front to back. It was reached by a flight of stairs, and there were pillars on each side of the jambs.

40:44 방 둘이 있는데
히브리어) '방들이 있는데'

40:44 남문
히브리어) '동문'

40:49 열한 척이며
칠십인 역본에는, 십이 척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영광의 무게가 더하여집니다(28~37).

바깥뜰의 동쪽, 북쪽, 남쪽 문을 차례로 둘러본 에스겔이 이번에는 천사에 이끌리어 안뜰의 남쪽 문에 이릅니다. 이곳에도 동일하게 세 방향으로 난 문이 있는데 바깥문은 동에서 북,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며 살펴보았다면, 안쪽문은 남에서 동, 동에서 북으로 이동하는 노선을 가집니다. 흥미롭게도 바깥문이나 안쪽문 모두 모양과 크기와 너비에 있어서는 동일한 반면에 문으로 들어가는 층수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바깥문에 놓인 계단이 총 일곱 개였다면, 안쪽문에 놓인 계단은 일곱에서 하나 더한 여덟 개의 층수였습니다. 늘어난 층수에서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더해진 점이 사뭇 놀라우면서도 각 문의 방향이 지성소를 가리키는 모습에 잔잔한 감동이 따릅니다. 그렇게 세 문에 둘러싸인 안뜰은 바깥뜰을 축소한 형태이지만 제사드릴 준비를 갖추는 장소였다는 점에서 쓰임새는 조금 구분되기도 합니다.

2. 안쪽문을 거쳐 제물방에 이릅니다(38~49).

남에서 시작하여 동쪽, 동쪽을 거쳐 북쪽으로 난 안쪽문에 이르자 방이 하나 보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방은 이른바 제물방으로 번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상과 여러 기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래도록 예배가 끊긴 채 살아온 에스겔의 입장에서 제물방을 보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예배가 시작될 이스라엘 땅을 상상해 볼 때, 비로소 제사장으로 나고 자란 인생의 의미를 되찾으며 궁극적으로는 회복된 민족의 정체성을 실감했을 법합니다. 한편으로 학자들은 제물방을 보여 준 천사의 안내 속에는 제물이 되시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비춘다고 주장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신 제사로 인하여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의 구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모두가 여호와께 나아가 수종드는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 에스겔이 성전으로 향하는 문 앞에 섭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지성소로 나아갈수록 땅에서부터 높아지는 성전의 설계도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까?

2. 예수님의 희생으로 아론의 후손만이 가능한 제사장 신분이 허물어지고 만인이 제사장으로 서게 됩니다. 날마다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31:1~3 [1]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2]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뗀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뗀 아이와 같습니다. [3]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1
화요일

마가복음 7:31~37

오늘의 찬송 384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말씀 속으로

31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Then Jesus left the vicinity of Tyre and went through Sidon, down to the Sea of Galilee and into the region of the Decapolis.

32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There some people brought to him a man who was deaf and could hardly talk, and they begged him to place his hand on the man.

33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After he took him aside, away from the crowd, Jesus put his fingers into the man's ears. Then he spit and touched the man's tongue.

34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He looked up to heaven and with a deep sigh said to him, "Ephphatha!" (which means, "Be opened!").

35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At this, the man's ears were opened, his tongue was loosened and he began to speak plainly.

36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Jesus commanded them not to tell anyone. But the more he did so, the more they kept talking about it.

37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People were overwhelmed with amazement. "He has done everything well," they said. "He even makes the deaf hear and the mute speak."

7:33 침을 뱉어
고대 이교도의 의식에 따르면 사람들은 신의 형상에 기름을 붓고 눈, 귀, 입을 열고 벌리는 행위를 하였다. 기름을 붓듯 병자에게 침을 뱉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을 보이셨다는 해석이 따른다.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수님이 탄식 중에 외치십니다(31~34).

두로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이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합니다(31절).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방의 땅이라 불리는 지역까지 두루 다니시는 걸음 속에 만민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는 한편에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소외된 자도 존재합니다(32절). 다행히도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나와 안수해 주기를 요청하자 예수님이 그를 따로 데리고 나오시더니 외치십니다. "에바다!", 곧 "열리라" 하는 말씀 한마디에 막힌 귀가 열리고 맺힌 혀가 풀어지는 권능이 나타납니다(34절). 이때 주님은 병자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는가 하면, 침을 뱉어 혀에 대시기도 합니다(33절). 조금은 기괴하다 싶은 행위 안에 담긴 예수님의 각오는 이후 사람들로부터 침 뱉음을 당하시는 모습으로 이어지며, 이 땅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로 오르시기로 결단하신 주님을 비춥니다.

2. 하나님이 창조하시자 소통이 시작됩니다(35~37).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35절)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나음을 받은 다음으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회복됩니다. 한편 마가는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된 근원을 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34절) 다시 말해 예수님은 단지 귀가 먹고 말을 더듬어서 치유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기로 창조된 인간의 본래적 형상이 상실된 현실에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로부터 이 사람을 떼어내신 후에 예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게 하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님은 말문이 열린 자에게 도리어 말하기를 금지시키시며,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시고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36절). 그러나 예수님을 둘러싼 소문은 갈수록 확장되어 갔고, 그곳에 예수님을 향한 인간의 긍정이 표현되며 이방 땅에도 복음이 심겨집니다(37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이웃과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2. "열리라!" 음성 안에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주신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68:7~10,19 7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장 서서 나아가시며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셀라) 8 하나님 앞에서, 시내 산의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이 흔들렸고 하늘도 폭우를 쏟아 내렸습니다. 9 하나님, 주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주님께서 주신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드셨고 10 주님의 식구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19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셀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2
수요일

마가복음 8:1~10

오늘의 찬송 331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말씀 속으로

1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During those days another large crowd gathered. Since they had nothing to eat, Jesus called his disciples to him and said,

2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I have compassion for these people; they have already been with me three days and have nothing to eat.

3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If I send them home hungry, they will collapse on the way, because some of them have come a long distance."

4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His disciples answered, "But where in this remote place can anyone get enough bread to feed them?"

5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이로소이다 하거늘

"How many loaves do you have?" Jesus asked. "Seven," they replied.

6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He told the crowd to sit down on the ground. When he had taken the seven loaves and given thanks, he broke them and gave them to his disciples to set before the people, and they did so.

7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They had a few small fish as well; he gave thanks for them also and told the disciples to distribute them.

8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The people ate and were satisfied. Afterward the disciples picked up seven basketfuls of broken pieces that were left over.

9 사람은 약 사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About four thousand men were present. And having sent them away,

10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he got into the boat with his disciples and went to the region of Dalmanutha.

8:6 앉게 하시고
2:15 난하주를 보라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합니다(1~5).

로마의 문화권 아래 있는 땅 데가볼리에서 예수님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셨습니다(7:31~37). 그리고 이어지는 본 단락은 '그 무렵', 즉 어느 정도 흘러간 시간을 암시하며 열리는데, 예수님 곁에 함께하던 '큰 무리'가 주목됩니다(1절). 그들 중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는 예수님의 고백으로 보아 여러 지역에서 온 이방 사람이 섞여 있는 걸로 추측됩니다(3절). 무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2절)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떠오르는 중에 놀랍게도 제자들은 편치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 빈 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만한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4절) 이방인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일이 못내 못마땅했는지 투덜거리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5절)

2. 예수님이 사천 명 되는 무리를 먹이십니다(6~10).

빵의 개수를 물으시는 질문 속에는, 그 빵이 과연 어디로부터 난 것이냐고 반문하시는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고, 떡 일곱 개와 생선 두어 마리로 큰 무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시는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가운데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어 마리를 축사하시고 떼어 앉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6~7절). 한편 학자들은 오병이어와 본 사건을 비교하면서 늘어난 두 개의 떡 분량 속에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상징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면서도 열두 광주리보다는 적은 일곱 광주리를 거둔 대목에서 자녀로 먼저 취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합니다(8절). 이처럼 주님은 어리석고 때로는 항변을 늘어놓는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하시며 당신이 누구인지를 직접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사명을 심어 주고 계셨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제자들의 완고한 마음이 내 안에는 없는지 돌아보며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웃의 하나님을 겸손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길 간구합시다.

2. 예수님이 떼어 주신 떡과 생선을 먹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대리자로 섭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구원의 자녀로 택함받은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4:27~29 27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28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 합니다. 29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3

목요일

마가복음 8:11~21

오늘의 찬송 430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말씀 속으로

11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The Pharisees came and began to question Jesus. To test him, they asked him for a sign from heaven.

12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He sighed deeply and said, "Why does this generation ask for a miraculous sign? I tell you the truth, no sign will be given to it."

13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Then he left them, got back into the boat and crossed to the other side.

14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매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The disciples had forgotten to bring bread, except for one loaf they had with them in the boat.

15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Be careful," Jesus warned them. "Watch out for the yeast of the Pharisees and that of Herod."

16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They discussed this with one another and said, "It is because we have no bread."

17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Aware of their discussion, Jesus asked them: "Why are you talking about having no bread? Do you still not see or understand? Are your hearts hardened?

18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Do you have eyes but fail to see, and ears but fail to hear? And don't you remember?

19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둘이니이다

When I broke the five loaves for the five thousand, how many basketfuls of pieces did you pick up?" "Twelve," they replied.

8:11 표적
또는 이적

8:16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또는 우리에게 떡이 없도다

23
—
목

20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이니이다

"And when I broke the seven loaves for the four thousand, how many basketfuls of pieces did you pick up?" They answered, "Seven."

21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He said to them, "Do you still not understan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수님도 완악한 마음은 거부하십니다(11~13).

오병이어에 이어 떡 일곱 개, 물고기 두어 마리로 사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광야에 들어선 출애굽 세대에게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만나가 이제는 살아 있는 양식으로 온 무리들을 찾으며 예수님 자신이 곧 생명의 근원이자 양식이 되심을 깨닫게 하고 계셨습니다. 데가볼리를 벗어나 유대의 색채가 강한 땅 '달마누다' 지방에 오시자 곧이어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시비를 거는 상황이 소개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11절) 이미 수많은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비추어 주셨지만 보고도 믿지 않으려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야가 맞는지를 시험한 셈입니다. 그들의 의도를 모를 일 없으신 주님이 분노와 탄식을 거듭하며 건너편 이방의 땅으로 다시금 걸음을 옮기십니다(12~13절).

2. 예수님이 떡 한 개의 의미를 물으십니다(14~21).

본 단락은 힐난하는 바리새인과 그들을 떠나 이동하시는 예수님이 묘사되는 중에 삽입됩니다. 흥미롭게도 이곳에서는 바리새인에 이어 '제자들'이 주목되는데, 그들이 탄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다는 의미심장한 구절이 떠오릅니다(14절).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15절) 떡 다섯 개를 떼어 오천 명을 먹이시고, 일곱 개를 떼어 사천 명을 먹이신 사건 다음으로 한 개의 떡이 조명된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을 가집니다. 즉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은 유일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제자들만큼은 떡 하나의 의미를 알기 원하신 주님이시기에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듭 강조하십니다. 이렇듯 믿음이 없이는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리이지만 은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참 제자로 서도록 이끄십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에게는 단호히 의분을 표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무엇을 기준 삼아 세상을 바라보며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까?

2. 제자들에게는 떡 하나를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한 가지는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6:8~12 8 주님,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9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10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1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12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4 — 금요일

마가복음 8:22~26

오늘의 찬송 438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말씀 속으로

22 벳새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They came to Bethsaida, and some people brought a blind man and begged Jesus to touch him.

23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He took the blind man by the hand and led him outside the village. When he had spit on the man's eyes and put his hands on him, Jesus asked, "Do you see anything?"

24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He looked up and said, "I see people; they look like trees walking around."

25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Once more Jesus put his hands on the man's eyes. Then his eyes were opened, his sight was restored, and he saw everything clearly.

26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Jesus sent him home, saying, "Don't go into the villag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수님과 맹인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22~24).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늘상 함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예수님의 모습 뒤에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신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사역을 전하여 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 벳새다 지역에 이르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며 안수해 주시길 간청합니다(22절). 간구의 소리를 들으신 주님이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는 마을 밖으로 나가시는 장면에서 소외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병자를 치유해 주신 것과 비슷하게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여 주십니다(23절; 7:31~37).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24절) 촉감으로만 어렴풋하게 알던 형체를 이제는 눈으로 확인하며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밝히 보아 아는 날까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25~26).

"그때에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25절) 놀랍게도 벳새다의 맹인을 치유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 안수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안수로 인하여 어렴풋이 형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두 번째 안수는 모든 것을 완전히 파악하는 상태에 이르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종말의 날이 오기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며 예수님 자신의 삶을 보여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가 맹인 한 사람을 통하여 벳새다 땅에도 임하게 되는데, 주님은 보게 된 자로 하여금 '마을' 곧 옛적의 문화로 살아가던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기를 은연중에 부탁하십니다(26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맹인을 고치시듯 나에게도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깊어지기를 기도합시다.

2. 맹인을 두 번 안수하시는 사건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계시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축복을 사모하는 인생이 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21:1~8 [1]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2]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3]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 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5]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네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6]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7]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 주시며, 네 생명을 지켜 주실 것이다. [8]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실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5 에스겔 41:1~11

토요일

오늘의 찬송 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말씀 속으로

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Then the man brought me to the outer sanctuary and measured the jambs; the width of the jambs was six cubits on each side.

2 그 문 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는 스무 척이며

The entrance was ten cubits wide, and the projecting walls on each side of it were five cubits wide. He also measured the outer sanctuary; it was forty cubits long and twenty cubits wide.

3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 척이요 문 통로가 여섯 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일곱 척이며

Then he went into the inner sanctuary and measured the jambs of the entrance; each was two cubits wide. The entrance was six cubits wide, and the projecting walls on each side of it were seven cubits wide.

4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 척이요 너비는 스무 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And he measured the length of the inner sanctuary; it was twenty cubits, and its width was twenty cubits across the end of the outer sanctuary. He said to me, "This is the Most Holy Place."

5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 척이며 성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네 척이며

Then he measured the wall of the temple; it was six cubits thick, and each side room around the temple was four cubits wide.

6 골방은 삼 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이라 그 삼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The side rooms were on three levels, one above another, thirty on each level. There were ledges all around the wall of the temple to serve as supports for the side rooms, so that the supports were not inserted into the wall of the temple.

7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The side rooms all around the temple were wider at each successive level. The structure surrounding the temple was built in ascending stages, so that the rooms widened as one went upward. A stairway went up from the lowest floor to the top floor through the middle floor.

41:1 그와 같으며
히브리어) '성막과 같으며'

41:7
본 절은 히브리 글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의역하였음

25
—
토

8 내가 보니 성전 삼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밑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여섯 척인데

I saw that the temple had a raised base all around it, forming the foundation of the side rooms. It was the length of the rod, six long cubits.

9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다섯 척이요 그 외에 빈 터가 남았으며

The outer wall of the side rooms was five cubits thick. The open area between the side rooms of the temple

10 성전 골방 삼면에 너비가 스무 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and the priests' rooms was twenty cubits wide all around the temple.

11 그 골방 문은 다 빈 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 터의 너비는 다섯 척이더라

There were entrances to the side rooms from the open area, one on the north and another on the south; and the base adjoining the open area was five cubits wide all aroun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믿는 자에게는 듣고, 보고, 전하고, 기뻐할 사명이 있습니다(1~4).

40장 48~49절은 성전 문 현관에 이르게 된 에스겔을 전합니다. 바깥문과 안쪽문보다 훨씬 더 작아진 이 문의 형태는, 대제사장이 아니고서는 함부로 출입이 불가했던 지성소의 영광을 보여 줍니다. 에스겔조차 대제사장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천사가 그를 대신하여 안에 들어가 '내전' 곧 '지성소'를 측량하는 모습이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곳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에스겔에게는 큰 기쁨이었을 테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기쁨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며 보고 들은 환상을 잘 전할 사명을 각인시키고 계셨습니다. 그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찾아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을 이루신 은혜에 감사하도록 이끕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에스겔이 그러하였듯 그의 의와 나라가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2. 하나님이 우리 마음 구석구석을 살피십니다(5~11).

성전의 영역 중에서 현관, 성소, 지성소의 측량이 이루어졌다면, 본 단락에서는 성전 건물이 측량되기 시작합니다. 흥미롭게도 성전 건물은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층의 외벽마다 너비가 네 척인 골방이 30개씩, 총 90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크기가 점점 커지는 구조를 지닌 골방은, 그 쓰임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예배 기구 등을 보관하거나 레위인 제사장의 숙소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따릅니다. 다락방과도 같은 구실을 한 골방까지도 세밀하게 보여 주시는 손길 안에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을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느껴지는 듯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성전 뒤 서쪽 뜰에 위치한 건물까지도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도 드러나는데(41:12),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음성이 다가오는 기분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일상을 보내며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2.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기거나 진실하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범사에 정직해지고, 정직한 자의 형통한 인생을 맛보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63:2~6 2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3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4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5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6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수피아 여학교 커티스 메모리얼 홀 | 광주광역시 남구 백서로 13

수피아 여학교는 1908년 4월 전라남도 기독교 선교의 창시자인 유진 벨 선교사가 설립, 개교하였다. 1905년 광주에 교회를 설립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교인의 자녀를 교육할 목적으로 1907년에 3명의 여학생에게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며, 이듬해에 대한제국의 승인을 받아 정식 개교하였다.

지금은 수피아 여자고등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이곳 오른쪽 언덕 위에 '커티스 메모리얼 홀'이 보인다. 1924년에 미국 남장로의 헌금으로 지어졌으며 헌금의 상당 부분을 기부했던 코넬리아 커티스 여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커디스 메모리얼 홀로 이름지었다. 그 후 1955년 선교사들의 회의 중 예배당 명칭을 수피아 여학교에 더욱 의미 있는 이름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와 '호남선교의 아버지'라 일컫는 유진 벨 선교사(한국이름 배유지)를 기려 이름을 '배유지 기념예배당'으로 바꾸었다. 이 건물은 2층 건물로 위층은 선교사와 그 가족들의 예배당으로 이용되었고, 아래층은 선교부 아동들의 학교로 쓰였다.

- 한국매일뉴스(hankukmail.com), 남도 문화기행(87) 기사 내용 참고 -

- 네이버 검색 내용 참고 -

홍성찬(홍군) | 예수쟁이고 겁쟁이고 가난뱅이고 복을 전하는 자유로운 장똘뱅이 www.honggoon.net

26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3/26~4/1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시 111:9)

March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7 에스겔 41:12~26

월요일

오늘의 찬송 411 아 내 맘속에

말씀 속으로

12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일흔 척이요 길이는 아흔 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다섯 척이더라

The building facing the temple courtyard on the west side was seventy cubits wide. The wall of the building was five cubits thick all around, and its length was ninety cubits.

13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 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백 척이요

Then he measured the temple; it was a hundred cubits long, and the temple courtyard and the building with its walls were also a hundred cubits long.

14 성전 앞면의 너비는 백 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The width of the temple courtyard on the east, including the front of the temple, was a hundred cubits.

15 그가 뒤뜰 너머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백 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Then he measured the length of the building facing the courtyard at the rear of the temple, including its galleries on each side; it was a hundred cubits. The outer sanctuary, the inner sanctuary and the portico facing the court,

16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 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as well as the thresholds and the narrow windows and galleries around the three of them - everything beyond and including the threshold was covered with wood. The floor, the wall up to the windows, and the windows were covered.

17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In the space above the outside of the entrance to the inner sanctuary and on the walls at regular intervals all around the inner and outer sanctuary

18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were carved cherubim and palm trees. Palm trees alternated with cherubim. Each cherub had two faces:

27
—
월

19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the face of a man toward the palm tree on one side and the face of a lion toward the palm tree on the other. They were carved all around the whole temple.

20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From the floor to the area above the entrance, cherubim and palm trees were carved on the wall of the outer sanctuary.

21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The outer sanctuary had a rectangular doorframe, and the one at the front of the Most Holy Place was similar.

22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의 상이라 하더라

There was a wooden altar three cubits high and two cubits square ; its corners, its base and its sides were of wood. The man said to me, "This is the table that is before the LORD."

23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Both the outer sanctuary and the Most Holy Place had double doors.

24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Each door had two leaves - two hinged leaves for each door.

25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And on the doors of the outer sanctuary were carved cherubim and palm trees like those carved on the walls, and there was a wooden overhang on the front of the portico.

26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On the sidewalls of the portico were narrow windows with palm trees carved on each side. The side rooms of the temple also had overhang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빛이 어둠을 덮습니다(12~20).

성전에서 잠시 이동하여 천사는 서쪽 뜰에 위치한 건물 하나를 소개합니다. 성전의 외벽에 설치된 골방과 같이 이 건물의 용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성전 뒤쪽에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전에서 나오는 오물 등을 처리하는 창고가 아니었는지 의견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영광스런 성전의 모습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희석시키는 듯한 어두움까지도 드러내시는 손길이 놀랍기만 합니다. 이 한 폭의 장면에서 하나님이 백성 안에 임재하시는 이유가 다름 아닌 쓰레기와도 같은 오물 때문이 아니었는지 반문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하여진 성전은 그 자체로서 광휘를 발하고 눈이 부신데, 값비싼 자재인 널판자가 성전 내부를 덮으며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를 상징하는 그룹과 화평의 언약을 상징하는 종려나무가 새겨진 널판자 속에서 에스겔과 우리는 다시 한번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2. 하나님은 약속에 약속을 더하여 주십니다(21~26).

에스겔의 눈에 성전 바깥뜰에 위치한 나무 제단이 들어옵니다. 높이는 세 척이고 길이는 두 척에, 전부 나무로 만들어진 이 제단은 '여호와의 앞의 상'이라고도 불리어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상이 진설병을 올려 놓는 역할로서 쓰임받았다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성전 내전과 외전에 세워진 문이 소개되는데, 접이식 형태로 만들어진 이 문은 내전과 외전을 구분하며 지성소와 그것을 둘러싼 장소를 다시 한번 나누기도 합니다. 여호와가 임재하시는 장소로 가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좁아지고 구분되는 묘사 속에서 분위기는 한층 더 고요해집니다. 내전과 외전을 나누는 각 문에 새겨진 그룹과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성전의 아름다움을 발하는 한편,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이 예비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어둠을 위하여 오신 빛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하여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2. 성전 환상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종려나무 형상은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 나는 무엇을 통하여 위로 받고 힘을 얻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57:7~11 7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8 내 영혼아, 깨어나라. 거문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9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뭇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10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11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8

화요일

마가복음 8:27~38

오늘의 찬송 449 예수 따라가며

말씀 속으로

27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Jesus and his disciples went on to the villages around Caesarea Philippi. On the way he asked them, "Who do people say I am?"

28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They replied, "Some say John the Baptist; others say Elijah; and still others, one of the prophets."

29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But what about you?" he asked. "Who do you say I am?"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30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Jesus warned them not to tell anyone about him.

31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He then began to teach them that the Son of Man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by the elders,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the law, and that he must be killed and after three days rise again.

32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He spoke plainly about this, and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33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But when Jesus turned and looked at his disciples, he rebuked Peter. "Get behind me, Satan!" he said. "You do not have in mind the things of God, but the things of men."

34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Then he called the crowd to him along with his disciples and said: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8:28 세례
헬라어) 또는 '침례'

28
—
화

35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For whoever want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e and for the gospel will save it.

3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What good is it for a man to gain the whole world, yet forfeit his soul?

37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Or what can a man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

38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If anyone is ashamed of me and my words in this adulterous and sinful generation, the Son of Man will be ashamed of him when he comes in his Father's glory with the holy angel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빌립보 가이사랴로 향하는 길에서 주님이 물으십니다(27~31).

벳새다 맹인에게 행해진 두 번의 안수는 인간과 세상의 구원을 끝까지 성취해 가시는 예수님을 비춥니다.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시는 영광스런 이 길에는 역설적이게도 고난과 죽음을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상징하는 듯 27절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며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담습니다. 분봉왕 빌립과 로마 황제의 별칭을 따서 이름 지은 '빌립보 가이사랴'는 갖가지 이방 신과 신전으로 즐비했는데, 이곳으로 나아가시는 중에 주님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뒤따르며 고난과 죽음 끝에 부활하실 예수님의 미래가 선포되기도 합니다(22~31절). 권세와 지위를 사랑하며 자랑 삼는 빌립보 가이사랴로 난 길 앞에서 놀랍게도 주님은 자기 부인과 죽음이 따르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 보이고 계셨습니다.

2.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릅니다(32~38).

베드로는 죽음을 예고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항변하기 시작합니다(32절). 그러자 그에게 노를 발하시는 음성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반문하게 됩니다(33절). 어쩌면 맹인의 눈을 두 번 고치시듯 제자들에게 두 번 질문하시는 의도 안에 그들 나름대로 원하고 기다린 메시야의 상을 변혁시키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진정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으며,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걷는 제자로서 서길 원하신 까닭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34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꿈을 실현해 주실 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죽음을 명하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 이어지며, 죽지 않고서는 생명이 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이 강조됩니다(35~37절). 성경은 이 길을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 죽음 너머 부활의 영광이 임한다고 약속합니다(38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 있었던 예수님의 질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 중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2. 자기 부인 없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무엇에 죽고 무엇에 살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9:111~113 111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112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 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113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9
—
수요일

마가복음 9:1~13

오늘의 찬송 546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말씀 속으로

1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And he said to them, "I tell you the truth, some who are standing here will not taste death before they see the kingdom of God come with power."

2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After six days Jesus took Peter, James and John with him and led them up a high mountain, where they were all alone. There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3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His clothes became dazzling white, whiter than anyone in the world could bleach them.

4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And there appeared before them Elijah and Moses, who were talking with Jesus.

5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Peter said to Jesus, "Rabbi,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Let us put up three shelters - 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6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He did not know what to say, they were so frightened.)

7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Then a cloud appeared and enveloped them, and a voice came from the cloud: "This is my Son, whom I love. Listen to him!"

8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더라

Suddenly, when they looked around, they no longer saw anyone with them except Jesus.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As they were coming down the mountain, Jesus gave them orders not to tell anyone what they had seen until the Son of Man had risen from the dead.

10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They kept the matter to themselves, discussing what "rising from the dead" meant.

11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And they asked him, "Why do the teachers of the law say that Elijah must come first?"

12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Jesus replied, "To be sure, Elijah does come first, and restores all things. Why then is it written that the Son of Man must suffer much and be rejected?

13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But I tell you, Elijah has come, and they have done to him everything they wished, just as it is written about him."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수님이 세 제자들과 산에 오르십니다(1~8).

베드로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음 뒤에 있을 부활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부활하신 그분을 보게 된다고 약속하니다(1절). 말씀이 선포된 지 엿새 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신 주님이 매우 영광스런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2~3절). 죽었던 엘리야와 모세까지 나타나 대화를 나누는 꿈 같은 현실에 베드로가 서둘러 말합니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5절) 말라기의 예언에 따라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에 나타나서 어지러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눈앞에 나타났으니 이때다 싶은 베드로는 더 이상 산 아래로 내려가기를 원치 않아 합니다. 여전히 고난을 회피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7절)

2.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아래로 다시 내려옵니다(9~13).

유대인에게 산은 조금 특별합니다. 시내 산에 오른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 산이듯, 그들에게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음성이 들려오며 율법의 내용이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부탁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11절) 사실 말라기에 기록된 엘리야에 관한 예언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회개를 선포한 세례 요한에 의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비롯하여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결국 헤롯에 의하여 목숨을 잃게 됩니다(12~13절). 여기에는 머지않아 예수님도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미래가 예고되어 있는데, 죽으심 뒤에 부활이 약속되었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분명 인자의 모습을 하셨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9절).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산 아래로 내려와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는 사역에 다시금 동참하게 됩니다(9:14~29). 성경은 그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말씀의 형식은 붙들지만 내용은 정작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날마다 성령님이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2. 예수님은 제자들이 머물러야 할 공간이 산 위가 아닌 산 아래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서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며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따라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9:33~37 33 주님,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34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35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36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37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30 마가복음 9:14~29

목요일

오늘의 찬송 300 내 맘이 낙심되며

말씀 속으로

14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When they came to the other disciples, they saw a large crowd around them and the teachers of the law arguing with them.

15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As soon as all the people saw Jesus, they were overwhelmed with wonder and ran to greet him.

16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What are you arguing with them about?" he asked.

17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A man in the crowd answered, "Teacher, I brought you my son, who is possessed by a spirit that has robbed him of speech.

18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Whenever it seizes him, it throws him to the ground. He foams at the mouth, gnashes his teeth and becomes rigid. I asked your disciples to drive out the spirit, but they could not."

19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O unbelieving generation," Jesus replied, "how long shall I stay with you? How long shall I put up with you? Bring the boy to me."

20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So they brought him. When the spirit saw Jesus, it immediately threw the boy into a convulsion. He fell to the ground and rolled around, foaming at the mouth.

21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Jesus asked the boy's father, "How long has he been like this?" "From childhood," he answered.

30
—
목

22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It has often thrown him into fire or water to kill him. But if you can do anything, take pity on us and help us."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If you can'?" said Jesus.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24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Immediately the boy's father exclaimed, "I do believe;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25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When Jesus saw that a crowd was running to the scene, he rebuked the evil spirit. "You deaf and mute spirit," he said, "I command you, come out of him and never enter him again."

26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The spirit shrieked, convulsed him violently and came out. The boy looked so much like a corpse that many said, "He's dead."

27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But Jesus took him by the hand and lifted him to his feet, and he stood up.

28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After Jesus had gone indoors, his disciples asked him privately, "Why couldn't we drive it out?"

29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He replied, "This kind can come out only by prayer."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산 아래에 귀신 들린 아이가 서 있습니다(14~20).

영광스런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을 본 세 제자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합니다(9:6). 특히나 두려움을 느꼈다는 묘사에서 그들이 기대한 메시야의 상이 조금씩 변화되진 않았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웠을 제자들을 이끌고 주님은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새겨 주시고자 하십니다. 때마침 산 아래에서는 무리들과 서기관이 한창 변론을 나누고 있었고, 한편에는 어릴 적부터 귀신이 들려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가는 한 아이가 서 있습니다(14~18절). 그를 본 주님이 상황을 묻자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을 향하여 통탄하시는 음성이 따르며 주님이 직접 그 아이를 보시겠다고 말씀합니다(19절). 십자가의 길이 다가올수록 제자들의 실체도 여실히 드러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제자도, 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2.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21~29)

주님을 보자 아이의 인격을 붙든 귀신이 가만있지를 못합니다(20절). 어린아이가 불과 물에 자주 던짐받을 정도였으니 귀신의 세력이 얼마나 강했을지 상상됩니다. 그만큼 타들어갈 대로 타들어간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지는 사이, 과연 예수님이 낫게 해 주실 수 있을지 의심이 들었을 법도 합니다. 그래서 원문은 불신의 색채를 보다 잘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자에 이어 아이의 아버지를 호되게 나무라십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23절) 그러자 말씀 한마디에 아이의 아버지는 즉시 고꾸라지고, 아이의 치유를 간절히 간청합니다(24절).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습을 돌이킬 줄 안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에 이어 주님이 명령하시자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는 일으킴을 받습니다(26~27절). 놀라운 사건이 벌이지는 때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여 어리둥절해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기도 외에',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십니다(28~29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주님을 불신한 아비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 앞에 잠잠히 서는 시간을 가집시다.

2.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7:6~9 6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 주십시오. 7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8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 주시고, 9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31 마가복음 9:30~37

금요일

오늘의 찬송 218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말씀 속으로

30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They left that place and passed through Galilee. Jesus did not want anyone to know where they were,

31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삼 일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because he was teaching his disciples. He said to them, "The Son of Man is going to be betrayed into the hands of men. They will kill him, and after three days he will rise."

32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But they did not understand what he meant and were afraid to ask him about it.

33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They came to Capernaum. When he was in the house, he asked them, "What were you arguing about on the road?"

34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But they kept quiet because on the way they had argued about who was the greatest.

35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Sitting down, Jesus called the Twelve and said, "If anyone wants to be first, he must be the very last, and the servant of all."

36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He took a little child and had him stand among them. Taking him in his arms, he said to them,

37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Whoever welcomes one of these little children in my name welcomes me; and whoever welcomes me does not welcome me but the one who sent m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30~32).

귀신 들린 아이를 회복하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갑니다(30절). 마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주목하는가 하면,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술하여 줍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31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지만 하나님의 길을 사람의 길로 걷고자 하는 제자들을 깨우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에는 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럽게 변모된 모습을 보여 주셨고, 산에 내려오셔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표적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고 전해집니다(32절). 그 마음 안에 로마 황제를 대신하고 왕으로 군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했던 제자들의 믿음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2. 연합하는 삶에 영광이 임합니다(33~37).

성경은 참 치밀하게도 제자의 현실을 기술합니다. 30~32절은 예수님의 반복되는 가르침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둔함이 표현되었다면, 본 단락은 세상의 방식을 고수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는 고집스러움을 보여 줍니다. 아마도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작은 논쟁이 있었던 모양인데, 주님이 모르시는 척 은근슬쩍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33절) 빌립보 가이사랴로 들어가는 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음성 뒤로 제자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자에 관한 논쟁이 벌여진 것입니다. 잠잠히 듣고 계시던 주님이 입을 열어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35절) 그리고는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며 연약하고 소외된 자의 생명을 위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가르치십니다(37절). 그때에 주님은 어린아이를 또한 안으시며 차별과 배제로 가득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 주고 계셨습니다(36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며 여호와의 견인하시는 사랑이 나와 이웃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2.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와도 같은 어린아이를 끌어안으시며 생명을 억압하는 왜곡된 역사를 짊어지시기로 결단합니다. 연합이 없이는 생명이 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나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9:164~168 164 주님의 공의로운 규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에도 일곱 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165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166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님의 계명들을 따릅니다. 167 내가 주님의 증거를 지키고, 그 증거를 매우 사랑합니다. 168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와 법도를 지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마음이
더욱 설레는 3월이길 원합니다.
세속적인 것들,
시들어 마를 땅의 것에 관심을 빼앗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향해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람, 갈급한 사람
모두 주님께 나아오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주시는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생명의 강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가득하고
수많은 시민이 불의한 힘에 억눌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병들어 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주님 주시는 넉넉하고 든든한 마음으로
온 땅의 고통과 아픔을 놓고 더욱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곳을 향해
함께 아파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더욱 확장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3. 2. 1(수) 새벽기도회 중에서

<라인>을 통해 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

글 **황영미** (집사)

영화 속 어린 마리옹의 순수한 신앙심은 우리 신앙심에 많은 도전이 된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 18:1-4)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순수함을 잃지 않는 열정을 가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매순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은 욕심에 이끌리어 흔들리기도 하고, 누가 큰지와 같은 세속적인 판단으로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크게 되기를 원하는 때가 많다. 하지만 세상 욕심을 모르는 어린아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을 대한다.

<라인>의 상황

프랑스 영화 <라인>은 가족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영화다. 우리는 가족에게 사회적 페르소나를 쓰고 대하지 않는다. 너무나도 가까운 사이라는 전제 하에 서운함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 영화에서는 너무도 성격이 닮은 모녀 사이, 그러나 닮았기에 화가 날 때 더 원초적인 표현까지 하게 되는 관계가 나온다.

위르실라 메이에 감독이 연출한 <라인>은 모녀의 갈등으로 큰 사건을 겪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딸 마르가레트 역의 작가이며 배우 스테파니 블랑슈도 이 영화의 각본에 참여했다. 2022년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었고, 특히 이야기와 적절하게 어울리는 클래식 음악과 이 영화를 위해 작곡된 음악이 돋보인다.

이야기는 겨울을 배경으로 시작된다. 멋진 산맥이 둘러쳐 있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마르가레트는 엄마 크리스티나의 놀리는 듯한 말투에 분노에 차서 엄마를 향해 돌진한다.

결국 엄마 크리스티나를 폭행하고 3개월 동안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게 된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출 21:15)

영화의 오프닝에 전개되는 모녀간의 몸싸움에서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마르가레트가 엄마 크리스티나의 뺨을 때리게 되고 넘어지면서 피아노 건반에 부딪힌 엄마의 한쪽 귀가 난청이 된다. 엄마가 고소하여 경찰이 오게 되고, 이후 마르가레트를 집에서 분리시키는 100미터는 가족과 다시 가까워지려는 그녀의 욕구를 악화시킬 뿐이었다. 엄마 크리스티나는 우울증이 있었고, 새로운 남자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오면서 허전함을 채우려 한다.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엄마 크리스티나는 딸들 앞에서도 애정 행각을 스스럼없이 한다. 막내딸 마리옹은 천식을 앓고 있고, 언니 걱정에 식사도 잘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쩌라고 하는 식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엄마라고 하더라도 마르가레트는 구약에서부터 금기되어 있는 부모를 때리는 죄를 저질렀다.

마르가레트는 그녀가 유일하게 대화를 나누는 가족인 막내 마리옹(초등학생)을 불러내 엄마의 안부를 묻고, 마리옹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교회에서 불러야 되는 성가곡을 전자 기타 반주로 연습시켜 준다. 가족 중 가장 신앙심이 깊고 착한 마리옹은 언니가 법적 안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집에서 100미터를 재어 길에 표시한다. 그리고 그 경계선 길 안쪽에서 앰프와 기타를 가져와 성가 연습을 한다.

이 영화에서 음악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프닝에서 모녀간의 분투로 마르가레트가 물건을 집어던지는 장면에 쓰인 음악은 이탈리아의 작곡가 비발디의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의 뜻을 지닌 '니시 도미누스'라는 성가이다. 시편 제126편을 가사로 하여 작곡된 곡이며, 무척 아름다운 곡이다. 느린 화면으로 진행되는 오프닝에 아름다운 성가가 배경 음악으로 사용되어 처음부터 장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던져지는 물건도 레코드 앨피판, 시디, 악보 등과 같은 물건들이다. 음악가 집안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피아니스트였던 엄마 크리스티나가 한쪽 귀가 난청이 되어 피아노를 팔게 되면서 화물차에 싣게 되는데, 차가 떠나기 전 그녀가 화물칸에 올라가 마지막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장면에서 슈베르트의 헝가리안 멜로디가 연주된다. 가슴 깊이 아련한 느낌을 주는 이 곡은 크리스티나가 얼마나 피아노를 사랑하는지 가슴 아프게 전해 준다. 그리고 접근금지령 3개월이 끝나 바깥에 버려둔 마르가레트의 짐을 챙겨올 때, 그녀의 짐 속에서 엄마 크리스티나가 마르가레트를 임신했던 20살 때 만들어진 연주 시디가 나오자 크리스티나는 둘째 딸 루이즈에게 차에서 틀어보라고 한다. 그 곡은 쇼팽의 야상곡 녹턴이다. 크리스티나는 허공에서 손가락으로 연주

하면서 마르가레트 생각에 눈물을 한 방울 떨군다. 이 음악은 앞으로 크리스티나가 마르가레트와 사랑이 회복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마르가레트는 전 남자친구와 듀엣으로 대중음악을 했는데, 사이가 소원해지자 혼자 전자 기타를 치며 노래를 한다. 마리옹은 자주 성가대 가운을 입고 등장한다. 소매가 주름이 잡히고 넓어서 팔을 벌리면 마치 천사의 날개처럼 보인다. 그녀는 큰 언니의 반주로 크리스마스에 부를 성가를 연습한다. 가사는 *"기쁨의 날, 승리의 날, 높은 곳에서 내려온 그분의 손, 깊은 물에 빠진 날 구하시고, 나를 품어 자유를 주시네"*이다. 마르가레트는 마리옹에게 "마리옹, 그 가사 믿어? 높은 곳에서 손이 내려와 깊은 물에 빠진 날 구하고 자유를 주신다는 말 믿어?"라고 물어본다. 마리옹은 "그럼! 감동적인 가사잖아. 마음이 편해."라고 답한다. 마리옹의 신앙은 그 뒤에 마리옹이 부르는 성가곡 가사에서도 자연스럽게 표현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 나의 모든 적과 맞서 영광을 빛내며 일어나시어 앞장서 걸으시네."*

어른답지 못한 엄마나 언니들보다 초등학생이지만 성숙한 마리옹의 태도와 따뜻한 마음은 그녀의 순수한 신앙심에서 비롯되었다. 마리옹은 접근 금지 3개월이 끝났는데도 큰 언니 마르가레트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큰 언니를 찾아 온 동네를 돌아다닌다. 한편으로 마리옹은 가족의 화목을 위해 추운 겨울날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을의 공터에 마련된 예수탄생 구유 마굿간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손 모아 몇 시간째 기도를 한다. "주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탄생일에 피가 흘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제가 막지 못했어요. 유다만큼 더러워진 기분이에요. 주여! 이렇게 빕니다. 엄마와 언니를 동시에 사랑하고 싶어요." 마리옹은 쉬지 않고 "사랑과 평화를 주세요. 언니는 어디 있어요? 주님만이 아시겠죠? 주님만 믿을게요. 신은 사랑이니까요."라고 기도한다. 마리옹의 간절한 기도는 주님께 닿아 법정 심리날에는 큰언니 마르가레트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영화는 가족의 화해로 마무리 지어진다.

영화 속 어린 마리옹의 순수한 신앙심은 우리 신앙심에 많은 도전이 된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손 모아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를 회복해 보자.

-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영화 <라인> 공식 스틸 이미지

- 이 글은 부산영화의 전당의 '오디오해설영화관'의 필자의 비평 (http://mobile.dureraum.org/bccm/board/view.do?rbsIdx=64&idx=101)을 바탕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Story | 소망마당

하나님의 시간 속 하나님의 사람들

글 **문재식** (전도사)

교역자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예배를 통해 변화되는 현장을 목격할 때입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변화되어서 열심을 내는 성도들을 보면 교역자는 보람을 느끼고, 더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소망교회 청년플러스 부서는 제게 그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는 특별한 부서입니다.

작년에 청년플러스 부서에 부임해서 예배드릴 때가 떠오릅니다. 당시에는 현재와는 많이 다른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적은 인원이 모여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도하고 헌신해 오신 부장단, 회장단, 세워진 리

더들의 노력에 열매가 맺히듯, 회복되어 가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부서 내에도 활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새신자가 찾아왔고, 발길이 뜸해진 분들께도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려서 모이기에 다시 힘썼습니다. 거창하고 화려한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주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진정성 있게 드리기를 원했고,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함께 반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가 있는가 하면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이도 있었고, 말씀을 통해 밝아진 얼굴로 돌아가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청년플러스는 예배를 통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한 주를 살아갈 힘을 매 주일 예배를 통해 공급받고 있는 듯합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순간이 있다면, 공동체 모임을 위한 리더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신앙의 열심을 가진 이들을 찾고 초청하여 그들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과정을 거쳐서 리더로 세워지는 과정이 참 소중했습니다. 리더로 세워진 청년들은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더욱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함 받는 것이 교회 안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년플러스는 그 모습을 보게 해 주는 귀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건과 상황을 볼 때 완전하다고 볼 순 없지만, 우리 안에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예배하는 청년플러스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 풍족하고도 차고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향유하는 청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글 **방지영** (자매)

청년플러스에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하면 항상 청년부 때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섬기면서 변화되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곳이 바로 공동체 모임이었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 왔지만 청소년부터 대학 때까지 선데이 크리스챤으로 살아왔습니다.

서른 살 때 청년부에 와서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처음으로 깊이 만났고, '주님과 가까이하는 삶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데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다 팬데믹으로 인해 나눔과 말씀의 갈급함을 느끼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던 중에 청년플러스에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활동이 정지되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지만 유튜브를 통해 목사님께서 매일 "말씀비타민"으로 말씀을 전해 주셔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힘든 가운데서도 1분 정도 되는 말씀을 통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츰 오프라인으로 교회 문이 열리면서 첫 행사로 홈커밍데이 "어쩌다 청플"이 열렸습니다. 기존에 나오지 못했던 청년들과 새로운 청년들, 교회 장로님들까지 100명 가까이 함께 모여서 식사와 친교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조심스러운 가운데에서도 많은 인원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3년 만에 수양관에서 가진 "여름 수련회"는 준비하는 과정 중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준비하는 부담도 있었지만, 부장단과 많은 분들의 기도로 무사히 진행되었고 수양관 본당에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때 보았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십자가를 다시 보는 순간, 위로받는 느낌

이 들었고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뜨겁게 찬양하였습니다. "복음의 나라"라는 주제로 제주드림교회 이재정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삶이 복음이 되어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잘 참고 버틴 시간들이 떠올랐고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복음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부 때의 저를 생각하면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세상에 나가 부딪히며 고민도 많이 하고, 시련도 겪어 가며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도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청년플러스에 와서는 이전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들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게 됨을 느끼고, 제 자신에 대해 더 집중하면서 회복해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청년플러스에서의 저는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대가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나이라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의 개념도 많이 바뀌어서 나이의 개념보다는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모여서 삶의 고민과 가치관을 이야기할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플러스는 우리가 함께 보고 느끼는 것들을 공유하고,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도록 돕는 든든한 울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년 동안 회장단이라는 직분으로 섬기면서 어려운 환경이 변화되고 바로 세워지는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30,40대 청년들이 모여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는 공동체 "청년플러스를"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헌화이야기 15

3월,
우리의 고백

2월 5일

글 **김성진**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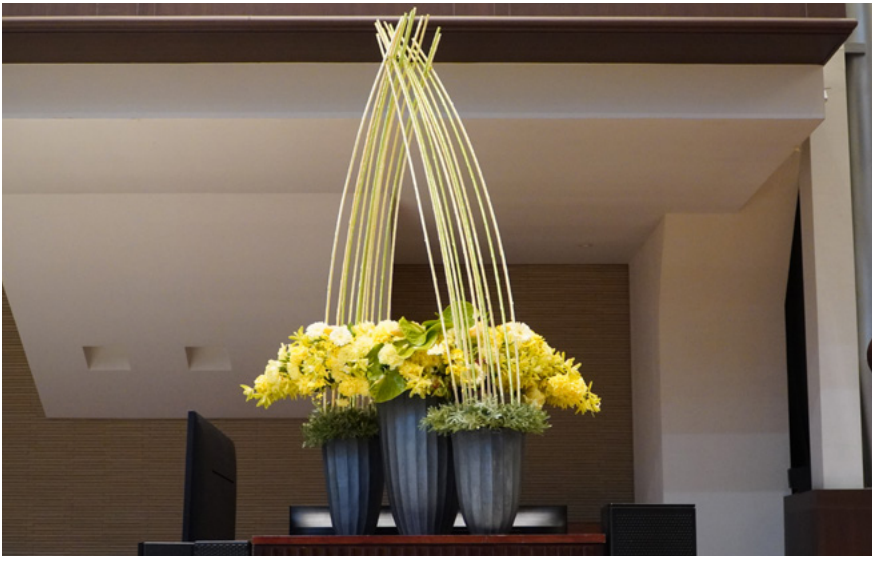
"그때에는 그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욥 29:3)

암흑 속에서도
주의 빛을 힘입어
걸어가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2월 12일

글 **김동순** (권사)

봄…
성전에도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2월 19일

글 **안진현** (권사)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며
올려 드린 헌화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 43:19)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글 **박경수**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그림 **이근복** (목사, 한국기독교목회지원네트워크 원장)

그림 1

장 칼뱅(1509-1564)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자라고 교육받았지만, 정작 사역자로 쓰임받은 곳은 스위스 제네바였다. 〔그림1〕은 프랑스 누아용noyon에 있는 칼뱅 생가이다. 칼뱅은 14세 때 파리로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누아용에 살면서 초등 교육을 받았다. 현재 칼뱅 박물관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프랑스 개신교 역사협회 소유이다. 제1차 세계 대전 때 완전히 파괴된 집을 예전 그림과 판화 자료를 바탕으로 복원하고, 제2차 세계 대전 때 다시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고, 1983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한 것이다. 출입구 옆에 '칼뱅 박물관Musée Calvin'이란 글자가 보인다.

3층으로 된 박물관 내부로 들어서면 1층에 '당신의 종votre serviteur'이라 쓴 칼뱅의 친필 사인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참으로 칼뱅은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했다. 칼뱅과 16세기 관련 유물은 2층과 3층에 전시되어 있다. 칼뱅이 파리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미사를 반대한 벽

그림 2

보(1534), 칼뱅이 서문을 작성한 피에르 올리베탕의 프랑스어 성서(1535), 칼뱅 주저인 《기독교강요》 초판(1536), 칼뱅이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즉 위그노 지도자인 가스파르 콜리니에게 보낸 편지 등을 원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위그노의 원형 예배당 모형과 그들이 겪은 고난의 역사를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칼뱅은 1523년부터 파리의 콜레주 라 마르슈와 콜레주 드 몽테규에서 수학했고, 1528년에는 오를레앙 대학에서, 1529년에는 부르주 대학에서 법학과 인문학을 공부했다. 칼뱅이 언제 복음주의 신앙으로 회심했는지는 학자들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533년경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 1536년 3월 바젤에서 《기독교강요》가 출판되었다. 《기독교강요》는 필립 멜란히톤의 《신학총론》과 함께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교과서로 자리매김했다. 27세 청년 칼뱅이 쓴 《기독교강요》는 지금까지도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고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책으로 명성을 얻은 칼뱅은 당시 제네바의 개혁자 기욤 파렐의 강권에 따라 1536년 여름 제네바의 교회 개혁 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님을 돌이켜 생각하여
주님께 제물로 바치듯 내 마음을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바칩니다"

동에 동참한다. 그러나 칼뱅은 제네바 토착 세력과 베른의 반대에 부딪쳐 1538년 4월 제네바를 떠나야만 했다.

〔그림2〕는 스트라스부르의 방패 교회Église du Bouclier이다. 제네바에서 추방당한 칼뱅은 1538년 9월 스트라스부르에 정착했다. 스트라스부르는 개혁자 칼뱅을 형성한 요람과 같다. 이곳에서 칼뱅은 프랑스 피난민 교회의 목회자로, 스트라스부르 아카데미의 교육자로, 《기독교강요》 2판(1539)과 《로마서 주석》(1540)을 집필한 신학자로, 이들레트 드 뷔르라는 여인과 결혼한 남편으로, 여러 도시에서 열린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대화에 참여한 활동가로 살았다. 칼뱅의 고백대로 그는 스트라스부르에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냈다.

방패 교회 출입문 옆에는 '프랑스 피난민 교회 최초의 목회자인 장 칼뱅(1538-1541년 사역)과 피에르 브륄리(1541-1544년 사역)를 기념하여'라고 적힌 작은 명패가 붙어 있다. 안으로 들어서면 화려한 로마 가톨릭 예배당과 확실하게 대비되는 소박하고 검소한 예배당이 보이는데, 그 모습이 인상적이다. 예배당 정면에는 높은 설교대가 있고 그 앞에는 낮은 성찬대가 있다. 설교대 위에는 '당신들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며, 당신들은 모두 형제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며, 우리는 동등한 형제자매라는 프로테스탄트의 원칙을 천명하는 셈이다.

1541년 제네바 교회는 스트라스부르에서 사역하던 칼뱅을 다시 청빙하고자 사람을 보냈다. 칼뱅은 제네바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완강하게 거절했다가, 기욤 파렐과 마르틴 부처의 강권에 결국 뜻을 꺾고 제네바행을 결심했다. 칼뱅은 파렐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님을 돌이켜 생각하여 주님께 제물로 바치듯 내 마음을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바칩니다"라고 고백했다. 그리하여 마음을 바치는 손이 칼뱅의 문장紋章이 되었다.

※ 저자의 허락을 받아 <복음과 상황>에 수록된 글과 그림을 게재하였습니다.

원근법과 명암법에 나타나는 세계관_르네상스

글 허윤정 (집사)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원근법과 명암법을 배우게 됩니다. 원근법은 눈으로 보는 3차원의 대상을 2차원의 평면으로 옮길 때, 일정한 시점에서 본 것 그대로 멀고 가까운 거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는 회화 기법입니다. 이 원근법은 르네상스 시기 브루넬레스키Brunelleschi, 1377~1446가 발명한 기법입니다. 건축가로서 그는 설계한 건물을 보여 주기 위해 원근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거리에 따라 대상이 작아지는 과정을 수학적으로 계산했고, 바라보는 자의 시선으로 지평선과 수직선이 수렴되는 소실점에 기초한 원근법을 완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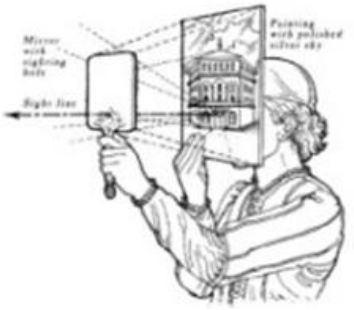


그림 1_브루넬레스키의 원근법 실험
그는 원근법을 이용해 건물을 그린 뒤, 그것을 실물과 비교하는 실험을 했다. 그림 앞에 거울을 놓고 구멍을 통해 거울을 보면 건물 그림이 보인다. 이때 거울을 치우면 구멍을 통해 실제 건물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거울을 넣고 빼면서 그림과 실물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그의 뒤를 이어 화가 마사치오Masaccio, 1401~1428는 그림 2와 같이 원근법을 회화에 구체적으로 처음 적용하였습니다. 그는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의 〈성삼위일체〉 작품 제작에 처음 원근법을 도입하였는데 그 그림을 처음 본 사람들은 벽을 뚫은 듯한 깊이감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서구 르네상스 시대인 15세기 건축가이자 화가인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 1404~1472는 유클리드 기하학과 광학의 원리에 따라 투시 원근법 체계를 만들어 원근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책을 썼고, 비례에 대한 이론도 확립했습니다. 원근법은 인간의 눈이 중심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르네상스 정신을 대표하는 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시점으로 공간과 대상을 구성하는 원근법은 세계를 객관적으로 관찰을 하게 하는 르네상스의 형이상학적 성찰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림 2_마사치오, 성삼위일체, 1428, 산타마리아 노벨라 교회

명암법도 세계를 그대로 그리고자 했던 르네상스 시대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객관적인 빛을 상정하고 그 빛에 따라 대

상의 밝고 어두움을 표현함으로 입체감과 깊이 있는 공간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3_안드레이 류블로프, 성삼위일체, 1425, 트레야코브 갤러리

그렇다면 중세에는 어떠했을까요? 몇몇 작품들을 통해 원근법과 명암법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는 15세기에 그려진 안드레이 류블로프Andrey Rublev, 1360추정~1430의 〈성삼위일체〉 작품입니다. 안드레이 류블로프는 구약성서에서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천사를 차용하여 성삼위일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늙어 수태하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찾아와 수태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 주는 세 천사가 삼위일체에 대한 예표적 이미지가 되고 있습니다.[1] 유사한 이목구비와 복장과 행동 그리고 부드러운 시선을 통해 이들이 일체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세의 그림은 교리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데, 사용한 색상이나 선은 성부 성자 성령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맨 왼쪽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위치합니다. 먼저 사용된 색의 상징적 의미를 보면 세 천사의 옷에서 푸른색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푸른색은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색으로 세 명 모두 하나의 신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의 옷에서의 붉은색은 왕의 색깔로서 그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형태와 관련된 상징을 보면 날개가 있다는 것은 이들이 신적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기 들고 있는 지팡이는 세 명이 하나이며, 같은 권한을 가진 하나님임을 나타내 줍니다. 성부 위의 집은 영원한 안식처를 의미하며, 성자 뒤에 있는 나무는 상수리나무로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성령 뒤에는 바위가 늘 묘사되는데 성령은 신앙의 굳건한 토대이심을 알려 줍니다.

이 작품에서는 역원근법이 사용되었습니다. 탁자 아래 부분을 자세히 보면 원근법에 의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좁아지는 형태가 아니라 반대로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이 아닌 신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림을 감상하는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그려진 것입니다. 역원근법을

사용하게 되면 감상자는 작품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보다는 작품 안에 들어가는 지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중세의 그림들은 평면적 특성이 강하나 명암법을 사용한 몇몇 작품의 경우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에 빛 자체인 예수님의 얼굴 중심이 밝고 양 옆으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중세에서의 빛은 현세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고 내면에서 빛나는 빛인 것입니다.[2] 즉 피조물인 인간의 눈이 아니라 초월적인 신의 눈에 비친 세계상을 구현한 것입니다.[3] 이와 같이 신 중심의 세계관이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에서 이룩한 원근법과 명암법은 이후 서양미술사에서 500년간 유효한 기법으로 미술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원근법과 명암법을 통해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가 얼마나 깊이 우리의 시각을 지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는 역원근법의 시각으로 세상 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림 출처]

1. https://cafe.naver.com/common/storyphoto/viewer.html?src=https%3A%2F%2Fcafepthumb-phinf.pstatic.net%2FMjAxNzEwMTFfMjIx%2FMDAxNTA3NzA1NDQ2OTEy.4FO1y5ZwqjgPh7ah9gu9oHDt6iBPnvQ—PSPdoAdXQcg.NOPJoCuQ1Ug4UoVSfttHPQeU151GzvhHotFbJgLuHOQg.JPEG.canonacademy507%2F7.JPG%3Ftype%3Dw1600
2.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d/d2/Masaccio%2C_trinit%C3%A0.jpg/274px-Masaccio%2C_trinit%C3%A0.jpg
3.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Leonardo_da_Vinci_-_Studies_of_the_foetus_in_the_womb.jpg

---

1) 이덕형, 이콘과 아방가르드, 생각나무, 2008.
2) 카레아 수도원, 이콘을 아십니까?, 요한 박용범 옮김, 정교회 출판사, 2011.
3) 이덕형, 앞의 책.

믿음은 들음에서

글 장선아 (권사)

2021년 4월 어느 날, 4세 필리핀 아이가 병원을 찾아왔다. 수많은 검사를 거쳤는데도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왜 눈도 안 마주치고 잘 먹지도 않고 말을 안 하는지 엄마는 수심에 가득 차 있었다. 아이는 엄마의 존재도 이해하지 못했고, 자폐 범주 장애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여서 소아정신과에서는 이비인후과를 추천했다고 했다. 청각 검사 결과, 아주 잘 듣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 아이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태어날 때부터 혹은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잘 듣지 못하면 말을 배우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한다. 아이는 태어나면 옹알이하고 점점 말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잘 먹고 잘 노는 데도 말을 못하는 경우 우리는 당황하게 된다.

청각은 인간에게 특별한 감각이다. 많은 동물들이 청각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만큼 이 감각을 사용하여 외부 자극을 해석하고 저장하여 사고와 인지, 나아가 언어를 발달시키는 존재는 세상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듣는다'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 왔다.

어디선가 '쿵' 소리가 나면 우리는 '들었다hear'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내 말을 잘 들어봐listen'할 때는 'hear'라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영어 듣기 평가에서 'Listen carefully!(잘 들어보세요)'라고 말하던 낭랑한 목소리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이다. 잘 듣지 않으면 정답을 맞출 수 없다. '잘 보고' '찾아보세요'라고 하며, '잘 듣고' 다음에는 '대답하세요'라고 한다. 들은 대로 말한다는 표현처럼 우리는 듣기와 말하기listen and talk의 관계를 일상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듣기만 하면 말할 수 있을까. 들은 다음 말하기 전에 생각think해야 하는 일이 많다. 잘 듣고 생각할 때 학습이 일어나며 사려와 배려를 배우게 된다. 그래서 듣는다는 감각은 생각과 말을 넘어 사람 간의 관계로 이어진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외모와 행동에 눈길이 가지만,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이해listen and understand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누가 싫어할까. 듣기는 사고thinking를 넘어 관계relationship로 가는 첫 단추이다.

성경에서 듣기를 강조하는 수많은 구절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청각 장애를 공부하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들음listening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 '듣는' 감각은 진리의 깨달음, 인격적 성장, 신앙의 성숙과 닿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셨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들려줘야 하는지 강조하며, '듣지

보청기

인공와우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간절하게 질책한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지만 매 주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공동체 안에서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청각의 원리와 기능에 닿아 있는 것이 아닐까.

청각 재활이나 청각 언어 치료 분야에서 일하다 보면, 정상이었던 청력이 점점 약해져 가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 60세 이상 인구의 25~40%, 70세 이상의 경우 38~70%가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장애 수준의 청력 손실을 가지게 된다. 약해지고 안 들리는 정도와 과정은 개인차가 크지만, 크게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 자신이 잘못 듣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이다. 주변 사람들은 자꾸 딴소리를 하거나 실수하는 나 때문에 힘이 드는데, 그에 대한 이해가 없다. 때로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믿지 않으며, 여러 가지 형태의 보청기가 있지만 부정적인 마음이 크다.

두 번째는 난청으로 인한 어려움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 '이전의 내 청력을 돌려 달라'는 태도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보청기나 인공와우가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기계의 성능을 탓하고 불편함을 강조하며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만 호소한다. 의료진이 나의 모든 어려움을 되돌려 놓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실력이 없다고 믿는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사라져 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슬프고 어려운 일이다. 청력 손실에 대한 자각이 없거나 큰 고통 중에 계시던 분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고 차츰 증상이 호전되거나, 자신의 문제를 깨달아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예전의 능력을 상당히 되찾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아이들이 말을 배워 가는 과정을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러나 마찬가지로 기쁘고 보람된 일이다. 살면서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소홀하게 생각해 온 귀 건강을 돌보고, 오히려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놀랍다. 절대 믿을 것 같지 않던 분들의 신앙고백을 들을 때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그 4세 필리핀 아이는 이제 6세가 되었다. 보청기를 끼고 엄마 손을 잡고 치료실에 뛰어 들어와 눈을 마주치고 장난감을 달라 한다. 아직은 어렵지만 한 마디 한 마디 선생님을 따라하며 듣기를 배우고, 생각과 마음이 자라난다. 그 아이의 '한 마디 말'은 2년을 하루같이 함께 해 온 우리 병원의 많은 직원들에게 기쁨과 보람을 안겨 주고 있다. 한 명의 소망교회 의료선교부 집사님의 기도에서 시작된 후원의 씨앗은 청각 장애 후원 재단에서 장기적이고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원으로 연결되었다. 그 아이를 위한 많은 '관계relationship들'이 되었다.

'의사'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은 아닌 것 같은데,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다. 청각장애인들을 더 이해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해 주고자 청각 생리와 해부를 바탕으로 검사와 진단을 하며 발전이 더딘 치료와 재활을 20여년 하다 보니 박사 학위에 자격증만 5가지가 되었다. 오랜 공부와 임상 끝에 확실히 배운 것 하나는 나는 더 잘 들어야 하며,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신중히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절(롬 10:9)들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말 배우기 어려운 아이처럼,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영영 못 배우는 내가 예수를 시인하는 그 어눌한 말을 너무나 듣고 싶으시구나, 자꾸 틀리고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늘 말하기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는데,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기대하며 기다리시는구나. 나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 믿음인지,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귀에 기쁨의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Somang Misson Training School

소망선교훈련학교, 그 변화의 시작에 관하여

글 3기 수료팀

'선교를 왜 해야 하는가' 물음에서 시작된 소망선교훈련학교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성취되는 과정을 성경적 관점, 역사적 관점, 문화적 관점, 전략적 관점에서 살피며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도록 안내해 줍니다. 선교에 대한 생각에 '살을 붙여 준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강미혜 집사

김기섭 집사

송자영 집사

양인재 집사

조동진 집사

Q1. SMTS 과정이 가져다준 변화는 무엇인가요?

복음이 선교지 토양 안에 '잘' 심겨져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과정의 중요성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상황화'**라는 개념을 토대로 오늘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민을 주어진 처소에서부터 예배드리는 삶을 통하여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훌륭한 조상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선교를 위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론 맡겨 주신 위임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세계선교부 일원으로서 활동하도록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나도 선교할 수 있구나!" 배운 개념을 암호처럼 이야기하는 재미는 덤입니다.

'영광받길 원하시는 하나님', <퍼스펙티브스>라는 꽤나 두꺼운 책을 자그만치 2권이나 공부하면서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강의해 주신 선교사님에 따르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

라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계시하시며 홀로 영광받으시는 일에 열정이 있으시다니, 이것을 깨달은 것만큼 값진 훈련이 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니 교회에서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더 큰 기쁨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선교는 예배이다', SMTS 과정을 수강하면서 참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에서 저는 보냄받는 선교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고 있었던 어린이부서 섬김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것,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교 안에 있습니다.

'선교에는 사명자의 마음이 필요하다', 캄보디아 선교를 꿈꾸고 있던 저로서는 SMTS 과정을 수강하면서 준비 없이 나갈 수 없는 게 선교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죽기를 각오하는 단계까지도 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면서 선교사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Q2. SMTS 과정을 수강하며 어려움은 없었나요?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나요?

처음 3주차는 어안이 벙벙할 만큼 어렵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라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게 오히려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반복해서 수강하면서 부족함을 채울 수 있었던 게 또 하나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서 강의를 수강해야 하는 점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책의 번역상 오류도 있어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았는데 익숙해지는 시간이 쌓이다 보니 조금씩 배움의 속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학생에게 전체 강의의 맥을 잡아 주는 가이드 강의는, 그야말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조별 활동에 대한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팀 안에서 서로를 끝까지 응원하고 격려해 줄 수 있었습니다. 수강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얻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아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여름에 퇴근하고 와서 강의를 들으며 졸았던 기억이 나네요 ㅎㅎ 아무래도 적지 않은 분량이다 보니 쉽지

않기도 했고, 선교사님들마다 강의력이 다른 점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듣다 보니 너무 좋아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는데, 건의사항을 살짝 말씀드려 본다면 강의를 많이 수강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묵상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 주신다면 어떨까 싶어요 ☺

훈련의 과정이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읽기 자료의 분량이 적지 않을 뿐더러 각 주차마다 문제풀이, 개별학습, 핵심카드 작성, 발제 등 해야 할 과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쌓이다 보니 선교의 롤모델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에 흠뻑 빠지게 된 것 같네요. 여기에는 조장님을 잘 만난 은혜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Q3. 마지막으로 나에게 'SMTS'란?

"심화과정"이다.

"예수님의 특별한 초대"이다.

"학구적 열정을 불태워 준 성취의 시간"이다.

"예수님의 승리를 묵상하게 한 시간"이다.

"신앙생활에 변화를 일으킨 변수"이다.

"4월 7일부터 7월 7일,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소망선교훈련학교 5기****에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려요."*

2월 첫째 주

2023 제직수련회

소망의 제직들이 지난 1월 18일 저녁, 제직수련회로 모였다. 신임집사와 권사를 포함한 소망교회 집사와 권사, 구역장과 권찰,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회원, 그리고 찬양대와 교사로 봉사하는 교회 일꾼들이 모두 참석했다. 김경진 담임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서 박찬일 장로는 소망의 제직들 모두가 복 받은 자의 사명을 다시 발견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했다. 이날 수련회 강사로는 모새골 설립자이자 전 영락교회와 주님의 교회 담임목사인 임영수 목사가 강사로 나섰다. '믿음의 경주'(히 12:1~13)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길들이시는 삶의 여정 가운데 익혀야 할 우리의 반응에 대해 전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자유, 단순성의 삶, 자기 자신의 화해, 나 다움, 과정의 중요성 등에 대해 선포하며, 이것이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연결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설교 후 김경진 담임목사가 신임집사를 임명하고 환영했다. 주님께 삶을 드리고자 나온 218명의 신임집사들에게 믿음의 성장과 하늘의 위로와 상급이 있기를, 이들의 사업과 일터,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했다. 영적인 결단을 새롭게 내린 소망의 제직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영광과 의가 드러나는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나가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가길 소망한다.

2월 셋째 주

2023 겨울비전트립

제직회 의료선교부와 대학, 청년부가 설 연휴와 방학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등 5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했다. 대학부 라오스팀은 라오스 북부 지역 산악지대 프안밋 학교를 찾아 에코백 만들기, 한국 음식 체험 시간을 갖고, 배수로 공사에 온 땀을 쏟았다. 필리핀팀은 교회 3곳에서 성경학교를 개최했다. 통신이 불가한 민도로섬에 들어가 아이들을 만나고, 코코넛 농장 안 교회에서 개최한 성경학교는 힘들지만 소중한 추억이 됐다. 청년부 캄보디아팀은 프놈펜 껍플록 교회를 찾아 현지 아이들과 함께 한국어 캠프, 주일 성경학교를 개최했다. 일본팀은 후쿠오카 오무타 교회를 찾아 노후한 교회 건물을 보수하고, 길거리 전도, 주변 마을 플로깅, 주일 예배를 진행했다. 제직회 의료선교부는 인도네시아 메단 브라스 따기 지역에서 의료봉사를 펼쳤다. 전산 진료시스템을 처음 도입해 전자 차트와 바코드로 환자들의 진료 내역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관리했다. 내과와 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 등 12개 분과와 약국까지 준비해 의료 사각지대의 현지 환자들을 진료했고, 선교사님을 위로하는 시간도 가졌다. 소망의 성도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결실의 계절이 오기를 소망한다.

소망의 말씀

2023 | 03

발 행 인 김경진
편집위원 윤 환
유지미
이경희
김영규
홍성민
편집주간 류헌조
편 집 장 하수경
편 집 팀 홍성찬
홍희선
디지털콘텐츠 조성실

디 자 인 워크워크
인 쇄 금호인쇄

발 행 일 2023년 2월 25일(통권 135호)
발 행 처 소망교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55(구 신사동 624)
문 의 02-512-9191

알립니다

소망 성도님들의 이야기(말씀을 통해 받았던 은혜, 신앙간증)를 보내 주세요.

보내실 곳 : somangqtpd@naver.com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며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허니브리지 10

Honeybridge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1박 2일 행복한 모임에
소망의 신혼부부를 초청합니다.

2023. 3. 31 Fri – 4. 1 Sat

알로프트 서울 명동 호텔
강사 : 김경진 담임목사 및 외부 강사

※ 허니브리지는 신혼부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영위하며
건강한 가정을 세우도록 돕는 가교로서의 모임입니다.

소망교회
THE SO-MANG PRESBYTERIAN CHURCH

대한민국 피로회복 프로젝트

피로회복

season3

'피로회복' 프로젝트는 사순절 기간,
건강한 절제를 통하여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사역입니다.
독일 개신 교회에서는
사순절에 '일곱 주간의 포기' 운동을 하였습니다.
미디어 금식, 금주, 간식 중단,
탄소 배출과 일회용품 사용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등을 절제하였습니다.
경건과 절제의 삶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간 및 참여 방법

회복의 일곱 주간(사순절) **2023. 2. 22**(수) - **4. 8**(토)
경건과 절제의 삶 통한 건강한 몸과 재정 준비하기

사랑의 실천 주간(부활절) **2023. 4. 9**(주일)
건강한 몸으로 헌혈(부활절, 본당 앞 헌혈 차량 / 가까운 혈액원) 또는
재정으로 이웃 사랑 실천하기(연세의료원과 함께하는 희귀난치병 환우 지원)

신청서 QR 코드
사랑 실천에 동참해 주세요.

소망교회

대한민국 피로회복